

『東醫寶鑑』의 目次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李仁洙 · 尹暢烈*

“Research for the table of contents in Donguibogam”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In Su Lee · Chang Ryel Yoon

Donguibogam rearranged existing vast works was established as the medical science laying stress on human body.

The contents of this book are divided into internal side of the body as Naekyung pyon, into outer side of the body as Woehyung pyon, into various kinds of diseases except for diseases in Naekyung pyon and Woehyung pyon as jopyung pyon, into medical herbs in natural world as Tangaek pyon, and into acupuncture and moxa cautery as Chingu pyon. The contents in Naekyung pyon are classified into essence, vigor, spirit and blood, dream, vocal ferment, speech, sap and unsound mucus, five viscera and six entrails, womb, vermin, urine and feces. And the contents in Woehyung pyon are divided into head, face, eyes, ears, nose, mouth and tongue, teeth that from upper to lower part of the body.

key words : Donguibogam, contents, Naekyung pyon, Woehyung pyon.

I . 緒 論

朝鮮時代に 편찬된 『東醫寶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韓中日 東洋3국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臨床에 편리한 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大韓形象醫學會에서는 『東醫寶鑑』을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東醫寶鑑』이 단지 中國醫書를 百科辭典式으로 나열한 것으로 독창성이 缺如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신동원은 『조선사람 許浚』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中國醫學史를 연구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니덤연구소의 서양인 학자들에게 韓國醫學史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인 『東醫寶鑑』을 보여주니, 目次에 나타난 몸 겉의 여러 부위를 하나로 묶은 「外形篇」, 몸 안의 여러 구성물을 하나로 묶은 「內景篇」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로 묶은 「雜病篇」 등으로 묶어 정리한 것은 한의학 역사상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 交信著者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2) 280-2601, yoony@dju.ac.kr.

독특한 것으로 대개의 韓醫書들이 疾病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東醫寶鑑』은 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¹⁾.”고 하였다. 즉 저자인 許浚은 병에 앞서 몸을 보는 입장에서 『東醫寶鑑』을 구성했다는 말이 된다. ‘몸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形象을 중요시한다.’는 말이 된다.

『東醫寶鑑』 첫머리에 身形臟腑圖를 두어 形象을 강조하며,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었고, 그 설명으로 ‘形象에 따라 治法이 다르다²⁾.’고 하였다. 그러므로 『東醫寶鑑』의 目次를 연구하는 이유는 『東醫寶鑑』의 集例에 “人體의 構成은 안으로 五臟六腑가 있고 筋骨·肌肉·血脈·皮膚가 있어 그 形態를 이루고 精氣神이 臟腑와 百體의 主가 된다³⁾.”고 하여 人體를 統體[전체]와 個體[부분]로 나누고 그것의 상관관계를 目次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個體는 物의 구성요소가 되고, 統體는 각 個體가 취합하여 통일작용을 행하여 統一體가 되므로⁴⁾’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알 수 있고 또한 전체를 알아야만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形象을 본다는 것은 統體와 個體를 함께 본다는 것이다⁵⁾.”라고 芝山先生⁶⁾은 形象의 重要性을 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東醫寶鑑』의 目次에 대해 南山堂版 國譯增補 『東醫寶鑑』을 기본으로 하고, 形象醫學을 주창하신 芝山先生의 사상을 정리한 『芝山形象醫案』⁷⁾을 중심으로, 신동원의 저서인 『조선사람 허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인 『形象醫學에 대한 考察』⁸⁾과 기타 관련서 등을 참고로 연구하여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 178.

2) 國譯增補 東醫寶鑑, p. 1.

3) 國譯增補 東醫寶鑑, p. 65.

4) 易學原論, p. 48.

5) 너와 나의 세계, p. 58.

6) 號는 芝山, 이름은 朴仁圭, 형상의학을 주창하였다.

7) 大韓形象醫學會에서 2003년 9월 20일에 芝山先生의 醫案을 정리하여 출간한 책

8) 필자가 2002년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석사논문으로 쓴 책

II. 本論

『東醫寶鑑』은 25권 25책 5편 106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편은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篇」, 「鍼灸篇」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目次는 2권이 된다. 本論에서는 첫째로 『東醫寶鑑』 目次의 내용을 설명하고, 둘째로 『東醫寶鑑』 目次의 獨創性을 설명하고, 셋째로 形象醫學과 『東醫寶鑑』 目次와의 상관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東醫寶鑑』 目次의 내용

1) 目次의 구성 순서

序, 總目, 上下 2卷

「內景篇」

集例, 歷代醫方

卷1 : 身形, 精, 氣, 神

卷2 :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卷3 : 五臟六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胞, 蟲

卷4 : 小便, 大便

「外形篇」

卷1 : 頭, 面, 眼

卷2 :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背

卷3 : 胸, 乳, 腹, 臍, 脇, 皮, 肉, 脈, 筋, 骨

卷4 : 手, 足, 毛髮, 前陰, 後陰

「雜病篇」

卷1 : 天地運氣, 審病, 辨證, 診脈, 用藥, 吐汗, 下

卷2 : 風, 寒(上)

卷3 : 寒(下), 暑, 濕, 燥, 火

卷4 : 內傷, 虛勞

卷5 : 霍亂, 嘔吐, 咳嗽

卷6 :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疸

卷7 : 咳痢, 溫疫, 邪祟, 癰疽(上)

卷8 : 癰疽(下), 諸瘡

卷9：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卷10：婦人

卷11：小兒

「湯液篇」

卷1：湯液緒例，水部，土部，穀部，人部，禽部，獸部

卷2：魚部，蟲部，果部，菜部，草部(上)

卷3：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鍼灸篇」

卷1：鍼灸

이상은 許浚 原著，原本 『東醫寶鑑』，南山堂，서울，1976，pp 1~2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篇’은 내용중심으로 구분하였고, ‘冊’은 대체로 내용과 종이 페이지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內景篇」 卷1에서 身形，精，氣，神을 기재하고 血을 卷2에 실은 理由는 身形은 몸 전체를 나타낸 것이고, “精氣神은 道家의 三要이다9)。” “精은 能히 氣로 化하고, 氣는 能히 神으로 化하며, 神은 能히 還虛한다10)。” 그러므로 精氣神은 虛로 완성된다는 것이 道家의 先天의인 입장인데, 精氣神이 血로 완성된다는 것은 ‘脾가 後天의 根本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道家는 呼吸에 중점을 두고 말하였고, 醫學은 ‘水穀이 養命의 근본이 되니11)’ 먹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였다.

또 五臟은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되어 있다. 다음에 膽腑이 나오는 것은 “膽은 火로 五臟의 風寒在下(肝腎在下), 燥熱在上(心肺在上), 濕氣居中(脾居中州)을 조절하고, 寅申少陽相火로 榮衛를 조절한다(寅은 膽, 申은 三焦). 肺는 榮衛의 主가 되지만, 그 流行하는 것은 膽이다.12)” 또

膽은 奇恒之腑로 五臟과 六腑의 연결고리가 된다. 다음에 胃腑，小腸腑，大腸腑，膀胱腑로 된 것은 위에서 아래로 소화되어 흡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外形篇」에서 外形의 배열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곁에서 안으로, 위아래, 위아래의 앞뒤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雜病篇」에서 「寒門」을 上下로 나눈 것은 水火로 본 것이다. 寒(上)의 경우에는 水로 하고, 寒(下)의 경우는 火로 본 것이다. 또 「癰疽門」을 上下로 나눈 것은 癰疽(上)은 癰疽의 전반적인 설명과 몸 안에 생긴 癰疽를 설명하고, 癰疽(下)에서는 몸밖에 생긴 癰疽를 설명하고 있다.

「湯液篇」에서 「草部」를 上下로 나눈 것은 큰 의미는 없는 듯하다. “한의학의 藥物學은 藥草가 중심이다. 다른 종류의 약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초를 기본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本草라고 한다. 양이 많아서 나눈 것이라고 본다. 상편에서는 79종, 하편에서는 188종 도합 267종의 약재가 실려 있다13)。” 상편에 중요한 약재를 더 많이 실었다고 본다.

2) 各 目次의 내용

(가) 內景篇

① 內景篇 1卷

㉠ 『東醫寶鑑』의 序

“醫學은 軒岐(黃帝와 岐伯)에서 시작되어 많은 학자가 나왔으나 論說이 紛然하고 정리되지 못하여 『靈樞經』의 진실한 뜻에서 벗어나 있고 窮理 變通하지 못하므로 許浚에게 일러 말씀하시길 중국의 方書를 정리하여 한 책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시고, 또 사람의 疾病이란 攝生을 잘하지 못하여 생긴다고 하시고 민중을 위하여

9) 許浚，國譯增補 東醫寶鑑，서울，南山堂，1995，p. 65.

10) 尹眞人 著，李潤鴻 譯，性命圭旨，한국문화사，서울，1995，p. 91.

11) 許浚，國譯增補 東醫寶鑑，서울，南山堂，1995，p. 634.

12) 韓南洙 著，金性鎔 編，石塘 理氣 漢醫學，醫聖堂，서울，1992，pp. 437-447.

13)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들녘，서울，2003，p. 892 p. 950.

우리 땅에 나는 鄉藥을 병기하도록 하였다. 許浚과 儒醫 鄭誥, 太醫 楊禮壽, 金應鐸, 李命源, 鄭禮男 등과 編局을 설치하였다.”¹⁴⁾고 되어 있다.

㉠ 『東醫寶鑑』의 總目

『東醫寶鑑』의 目次를 자세히 적었다.

㉡ 集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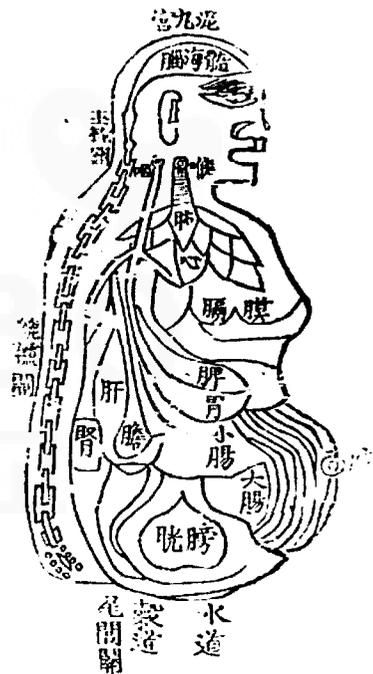
集例는 編輯原則을 주로 말하였다. “人體의 構成은 안으로 五臟六腑가 있고 밖으로 筋骨, 肌肉, 血脈, 皮膚가 있어서 그 形態를 이루고, 精氣神 또한 臟腑와 百體의 主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人體의 五臟六腑, 皮肉脈筋骨, 精氣神의 相互關係에 대해 말하였다. 또 道家書인 『黃庭經』에 內景에 관한 글이 있고 醫書에도 內外境界之圖가 있으므로 道家는 淸淨과 修養으로써 生의 根本을 삼고, 醫家는 藥餌와 鍼灸로써 治療의 法則을 삼았으니 道家는 心身의 전체를 다루었고, 醫家는 거칠게 구체적인 부분만을 다루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內景의 精氣神과 臟腑를 넣어서 內篇(內景篇)으로 하고, 다음에 外境의 頭, 面, 手, 足, 筋, 脈, 骨, 肉을 가지고 外篇(外形篇)으로 하였다. 또 五運六氣, 四象, 三法, 內傷, 外感 등의 모든 症例를 따서 雜篇(雜病篇)으로 하였다. 끝으로 湯液篇과 鍼灸篇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이 책을 펼치면 虛實, 輕重, 吉凶, 死生의 徵兆가 水面에 物體가 비쳐 보이도록 환하다 하였다. 또한,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에 準하여 處方藥材의 重量을 정하였다. 中國醫學에 대해 뒤떨어지지 않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으므로 東醫라 하고 거울과 같이 흰히 알 수 있도록 하여 寶鑑이라 하여 『東醫寶鑑』이라 한다는 朝鮮醫學의 자신감을 드러내었다¹⁵⁾.”

그리고 集例에 나오듯이 『東醫寶鑑』은 道家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委白陽, 葛洪, 陶弘景, 孫思邈, 孟詵, 왕희은, 마지 등이 道家였으며, 許浚은 道家의 추종자내지 신봉자였으며, 『素問』,

『靈樞』, 『難經』, 『中藏經』, 『神農本草經』, 『本草經集注』, 『新修本草經』 등이 道家의 영향을 받은 冊이었듯이,¹⁶⁾ 漢醫學은 道家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東醫寶鑑』은 그 傳統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歷代醫方

“『朝鮮醫學史及疾病史』를 지은 米키 사카에나, 『韓國醫學史』를 지은 金斗鍾은 歷代醫方에 있는 中國醫書 83종과 朝鮮醫書 3종을 『東醫寶鑑』의 引用書目으로 간주하였는데 사실은 『東醫



寶鑑』속에는 그밖에 100여종이 더 인용되어 있으며 歷代醫方에 들어 있는 『천원옥책』, 『지교론』 등은 인용되어 있지 않다. 최근 연변에서 나온 최수한의 『조선의적통고』에서는 실제 인용된 문헌이 240여종임을 분명히 하였다¹⁷⁾.”

『國譯增補 東醫寶鑑』 南山堂版¹⁸⁾에서는 처음

1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6, 7.

1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5.

16) 두호경, 동양의약은 어떤 학문인가?, 서울, 교학사, 2003.

17)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86-87.

부터 歷代醫方까지를 1~67페이지로 하고, 다음에 「內景篇·身形臟腑圖」부터 1페이지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¹⁹⁾. 本 論文中에서 「內景篇」 서문부터 시작한 것은 原本 『東醫寶鑑』 南山堂版²⁰⁾을 따랐다.

㊸ 身形臟腑圖

글로 뜻을 다 전달할 수 없으므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 人體를 전체적으로 나타냈다. “몸 바깥에 머리와 몸통부위가 있다. 머리에는 눈, 코, 귀, 입이 있고, 몸통에는 배꼽이 있다. 이 밖에도 飲食과 空氣가 안으로 통하는 길인 咽과 喉가 있다. 몸 안에는 五臟인 肝, 心, 脾, 肺, 腎이 있고, 六腑 중 膽, 胃, 小腸, 大腸, 膀胱 등 다섯 腑가 있다. 六腑 중 나머지 하나인 三焦는 특정한 부위가 없으므로 그려져 있지 않다. 이 밖에도 각기 大便과 小便이 통하는 길인 穀道와 水道가 그려져 있다. 몸 안의 器官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脊椎의 三關部位다. 이곳은 養生을 위해 氣를 수련할 때 精氣가 오르는 길이다. 脊椎 맨 아래 부분을 尾閭關, 중간부분을 轆轤關, 맨 윗부분을 玉枕關이라 한다. 玉枕關은 精神活動을 主管하는 腦髓海로 연결된다. 이 그림은 몸 안에서 氣의 통로가 어떻게 비롯되며, 그것이 어떻게 五臟六腑 등과 연결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²¹⁾.”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배꼽주위를 파도치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배에서는 律動作用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며, “腦는 髓海임을 보여주고 脊椎는 尾閭關, 轆轤關, 玉枕關 등으로 精氣의 升降하는 길을 나타내고 있다²²⁾.” 芝山先生은 “이 그림은 人間의 側面圖이다. 사람의 앞은 땅이요, 사람의 등은 하늘이다. 하늘과 땅

을 縫合한 것이 側面이다. 이 그림이 있기에 漢醫學이 처음 생겼다²³⁾.”라고 하였다. “『東醫寶鑑』의 이 身形臟腑圖는 許浚이 龔廷賢의 『萬病回春』의 側身人圖²⁴⁾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許浚이 중점을 둔 것은 生命의 根本이라 할 수 있는 몸 안의 氣와 精神을 修養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身體를 통하여 구현된다²⁵⁾.”고 보았다.

身形臟腑圖를 설명한 「身形臟腑論」에서는 “사람은 宇宙에서 가장 靈貴한 存在이다.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象한 것이요 발이 모난 것은 땅을 象한 것이다. 하늘에 四時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四肢가 있다. 하늘에 五行이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五臟이 있다. 하늘에 六極이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六腑가 있다. 하늘에 八風이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八節이 있다. 하늘에 九星이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九竅가 있다. 하늘에 十二時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12經脈이 있다. 하늘에 24氣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24俞가 있다. 하늘에 365도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365骨節이 있다. 하늘에 日月이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眼目이 있다. 하늘에 晝夜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寤寐가 있고, 하늘에 雷電이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喜怒가 있고, 하늘에 雨露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涕淚가 있고, 하늘에 陰陽이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寒熱이 있고, 땅에 泉水가 있으며 사람에게 血脈이 있고, 땅에 草木과 金石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毛髮과 齒牙가 있으니, 이러한 것은 모두 四大 五常이 妙하고 아름답게 조화되어 성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形體는 긴 편이 짧은 편만 못하며, 큰 편이 작은 편만 못하고, 살찐 편이 여윈 편만 못하고, 흰 편이 검은 편만 못하고, 嫩한 편이 蒼한 편만 못하고, 옅은 편이 두터운 편만 못한 것이다. 더욱이 살이 쪼면 濕이 많고 여위면 火

1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19)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86-87.
 20) 許浚 原著, 原本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76
 21)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34,35.
 2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4.

23)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 11
 24) 龔廷賢, 增補 萬病回春, 杏林書院, 서울, 1972, p. 32.
 25)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36-37.

가 많으며 희면 肺氣가 虛하고 검은면 腎氣가 足하므로 사람에 따라서 形色이 다르고 臟腑도 같지 않으니, 外證은 비록 같을지라도 治法은 사람에 따라 판이하다²⁶⁾.”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身形臟腑論」에서는 「東醫寶鑑」의 大義를 말하고 있다. 사람을 우주에서 가장 靈貴한 존재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발은 땅을 닮아서 모나다.’라고 하였다. 芝山先生은 이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여, “인체의 後面은 陽이며, 인체의 前面은 陰이다. 後面은 陰이기에 붙어 있는 物이 없고, 前面은 陰이기에 乳房과 性器 등이 붙어 있다. 또한 人體의 前面은 動物이며 動物은 橫으로 성립된다. 인체의 後面은 植物이며 植物은 縱으로 성립된다. 人間은 動物도 아니요 植物도 아니며, 動物인 동시에 植物이 된다. 動物과 植物을 다 갖추었기에 人間은 萬物을 대표하는 靈貴한 존재인 것이다²⁷⁾.”라고 하였다. 한의학에서 人身은 小宇宙인 것을 명백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朱丹溪의 말을 빌어 “사람의 形象이 長短, 大小, 肥瘦, 黑白, 嫩蒼, 薄厚의 다름이 있고 肥人은 濕이 많고 瘦人은 火가 많으며 흰 사람은 肺氣가 虛하고 검은 사람은 腎氣가 足하므로 사람의 形象에 따라 外症이 비록 같더라도 治法은 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形象醫學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다.

㉑ 身形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形氣之始」에 보면, “『乾鑿度』에 하늘의 형체는 乾에서 생기며 乾에는 太易, 太初, 太始, 太素의 四要素가 있는데 太易은 氣가 생기지 않을 때요 太初는 氣의 시작이며 太始는 形의 시작이요 太素는 質의 시작이니 病은 太素에서 시작된다²⁸⁾.”고 하였다.

2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

27)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p. 108-109.

2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

㉒ 精

精은 身體의 根本이다²⁹⁾.

㉓ 氣

氣는 精神의 根이 된다³⁰⁾.

㉔ 神

精氣神은 人體의 構成要素인데 “精은 身體의 根本이며, 精이 氣를 생하고, 氣가 神을 생한다³¹⁾.”고 하였다. “精은 穀食에서 생긴다. 精이 부족한 자는 食味로써 補한다고 하였다³²⁾.” “氣는 穀食에서 생기는데 穀食이 胃에 들어가서 肺에 전하여 五臟六腑가 그 기운을 받아서 맑은 것은 榮이 되고 탁한 것은 衛가 된다³³⁾.”고 하였다. “榮衛란 經絡에 있는 氣血을 榮衛라 한다³⁴⁾.” “五味가 神을 생하는데 神이 一身의 主가 되며, 心이 神을 간직하고 五臟이 七神을 간직한다³⁵⁾.”

② 內景篇 2卷

㉕ 血

“피가 성하면 形體가 盛하고 피가 약하면 形體가 衰하는 법이다³⁶⁾.”라고 하였고, “老化는 血의 衰弱³⁷⁾”이라 하였듯이 血이란 형틀을 의미한다.

精氣神血은 인체의 근본바탕을 말한다. 精은 입에서 취하며 氣는 코에서 神은 精氣의 교합으로 눈에 나타나고, 血은 精氣神의 습으로 귀에서 나타난다. 또한 精氣神血의 모순이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으로 나타난다.

㉖ 夢

“예전의 眞人은 꿈이 없었다. 꿈이 없는 것은

2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7.

3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5.

3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7.

3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9.

3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6.

34) 成周鳳, 韓方醫學講習書, 忠南 大田, 以文社, 昭和 11년, p. 34.

3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40-41.

3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9.

3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6.

神이 守舍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까닭이다³⁸⁾.” 꿈을 꾸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神門」에 “心은 神을 통솔하므로³⁹⁾” 꿈을 꾸는 것은 神의 손상이다.

㊦ 聲音

“心은 聲音의 主가 되고 肺는 聲音의 門이 되며, 腎은 聲音의 根이 된다⁴⁰⁾.” 腎이 聲音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肺의 기운을 쓴다는 말이 된다.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면 「聲音門」의 荊蘇湯, 人蔘荊芥散, 射干湯을 써야 하는데⁴¹⁾”, 傷寒으로 속단하여 함부로 敗毒散이나 蔘蘇飲 등을 쓴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聲音이 안나오는 것은 精氣神血이 손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目次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言語

聲音이 목소리 자체가 안나오는 것임에 비해, ‘言語는 肺가 소리를 주관하는데 言語가 분명하지 못하던지 言語가 가늘던지, 울음, 부르짖음, 앓는 소리, 기지개, 한숨, 재채기, 트림 등을 말하는 것⁴²⁾’으로 分類하고 있다.

㊨ 津液

“腎이 五液을 주관하는데⁴³⁾”, 「津液門」은 주로 汗에 관계된 것이다. “汗은 心에 관계되는데 이것은 心이 火이기 때문이다. 脾胃의 濕熱로 汗이 나며, 自汗 盜汗이 있는데, 自汗은 氣虛濕痰하며 盜汗은 陰虛로 血虛有火이다⁴⁴⁾.” 그러므로, 形象으로 보면 肥白人은 衛氣가 虛하므로 自汗하며, 瘦黑人은 營血이 虛하므로 盜汗한다.

㊩ 痰飲

“痰이란 津液의 異名⁴⁵⁾”이라 했는데, 이 말은 “津液이 津液化되지 못한 것이 痰飲⁴⁶⁾”이란 의미이다. “王隱君의 談論에 보면 사람의 모든 疾病이 대부분 모두 痰에서 생긴다고 하였으니⁴⁷⁾”, “十病九痰⁴⁸⁾”이라는 말이 진실로 名言이라 하겠다. 요즘에 온갖 기괴한 병들은 모두 痰飲에 속한다고 하겠다. 더구나 찬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현대의 잘못된 습관으로 많은 痰飲病이 생긴다고 본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잘 소화하여 영양분을 저장하고 노폐물을 잘 내보낸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消化가 잘 안되고 영양분과 노폐물이 분리 잘 안 되는 현상을 痰飲이라 한다. 痰飲은 脾胃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內傷門」과 관계가 있다.

또 芝山先生은 “精氣神血病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의 운행으로 나타난다. 수족에 땀이 나는 것은 精氣神血의 운행이 되지 않아서 津液이 새는 것이다⁴⁹⁾.”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精氣神血을 좋게 할 수 있다.

痰飲이 있을 때 제일 많은 症狀이 小便不利와 大便不利다⁵⁰⁾.

③ 內景篇 3卷

㉠ 五臟六腑

“세상사람들이 天地萬物의 이치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五臟六腑, 毛髮 筋骨의 構造

3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75.
 3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0.
 4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81.
 4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82.
 4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86-89.
 4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89.
 4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90-92.

4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98.
 46)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455.
 4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98,99.
 4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05.
 49)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586.
 50)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43.

에 대하여는 거의 모르고 있다. 하물며 의사가 몰라서 되겠는가? 五臟은 精神 血氣 魂魄을 간직하고 六腑는 水穀을 消化해서 津液을 만든다⁵¹⁾.”고 하였다. 五臟은 陰으로 써먹는 곳이고, 六腑는 陽으로 일하는 곳이다. 五臟六腑에 대한 약을 쓰려면 色과 耳目口鼻의 大小, 高低, 剛柔, 正偏을 살펴야 한다. “五臟이 七竅와 통하니⁵²⁾”, 이것은 뱃속의 五臟이 얼굴의 耳目口鼻에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五臟에 대한 약을 쓰려면 內外證을 확인하여야 한다.

㉡ 膽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陽으로 일하여 津液을 만드는 곳이다.

㉢ 胞

“男子는 胞에 精을 간직하여 施化하고, 女子는 胞로써 孕胎하는데 모두 生化의 根源이 된다⁵³⁾.”고 하였다. 女子에게 있어서 衝任脈이 다 胞中에서 일어나므로 「胞門」에서는 月經에 대해 말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와 달리 『濟衆新編』⁵⁴⁾에서는 胞를 「婦人門」에 포함하였는데 이것은 그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胞門」은 「婦人門」의 孕胎하는 것과 관계는 있지만,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芝山先生은 “「胞門」에서의 生化란 男子의 精을 받아들여서 妊娠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반하여 「婦人門」은 妊娠하여 아이를 낳는 것, 創造에 대한 문제이다. 「胞門」은 창조이전의 미혼여성에게 해당하고 「婦人門」은 창조이후의 이야기로 기혼여성에게 해당한다⁵⁵⁾.”고 분명히 하였다. 또한 “陰頭(生殖器)와 陽頭(머리)는 表裏관계에 있다⁵⁶⁾.”고 하여 여자의 머리와

생식기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였다.

㉣ 蟲

“음식의 조절 못함과 魚膾, 生菜, 過食으로 濕熱이 되어 蟲이 생긴다⁵⁷⁾.”고 하였으니, 「蟲門」의 내용을 그저 기생충의 감염으로 나타나는 병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 예를 들어 食蟲이 많은 사람은 밥을 잘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도 계속 먹어서 위염에서 위암이 되고, 또한 술을 조금 먹는 사람이 자꾸 먹어서 酒蟲이 늘었다면 이는 밥이나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內傷門」과 「津液門」, 「五臟六腑門」 등 전신이 약해서 오는 「虛勞門」과 관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蟲門」의 凝神飲子는 補하는 약이다.

④ 內景篇 4卷

㉠ 小便

“膀胱은 津液의 집으로 上口는 있지만 下口는 없다⁵⁸⁾.” 이 말은 “氣化하면 小便이 나가고 津液은 상승하여 腦髓를 채운다.”는 의미이다. “小便은 陽氣의 運行을 나타내는 곳이다⁵⁹⁾.”

㉡ 大便

“小腸은 清濁을 분별하여 정밀한 소화를 시키고 大腸은 傳導의 官으로 食物을 소화하여 내보낸다⁶⁰⁾.” 女子가 便秘가 되는 것은 月經을 함으로 陰血이 不足한 까닭이다. “便秘가 있는 것은 陰血이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⁶¹⁾.” 그러므로 大便은 陰血의 運行을 보는 곳이다.

「用藥篇」에 “대체로 病을 다스리는 法이 반드시 먼저 그 本을 다스린 뒤에 다음 그 標를 다스려야 하는 법인데, 다만, 中滿과 大小便의 不利는 그 標와 本을 가릴 것이 없이 먼저 다스

2003, p. 1557.

5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13.

5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13.

5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43.

54) 康命吉, 濟衆新編, 杏林出版社, 서울, 1982, pp. 31-35.

55)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2.

56)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5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58.

5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69.

59)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p. 531, 532.

6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89.

61)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131.

려야 한다⁶²⁾.”고 하였다. 芝山先生은 精氣神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과 五臟六腑, 胞, 蟲, 小便, 大便에 대해 “形을 돌위 준다는 얘기는 血을 돌운다는 말이며, 한 예로 不眠症도 精氣神血이 나빠서 오면 「夢門」의 약을 쓰지만 五臟六腑가 不和되서 오면 大小便을 通利시켜주면 된다. 예를 들어 저녁에 小便을 자주 봐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小便短少를 치료해주면 잠을 잘 수 있다⁶³⁾.”고 하였다.

五臟六腑가 돌아가는 것은 胞, 蟲, 小便, 大便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東醫寶鑑』의 養老하는 法의 老化는 血의 衰弱이라는 조문에 보면, “老人이 되면, 자연히 精血이 같이 소모하여 七竅가 정상을 잃으므로 (精氣神血이 나빠지므로 五臟六腑가 나빠져서라는 의미, 五臟六腑가 耳目口鼻로 나타나므로), 눈물이 없으나 도리어 눈물이 흐르고 코에는 흐린 물이 많으며 귀가 울고 식물을 씹어도 입이 마르고 잠잘 때에 침이 넘쳐흐르며 小便이 濡泄되고 大便의 燥泄이 無常하며(五臟六腑가 나빠져서 大小便의 이상이 나타남.) 낮에 잠이 많고 밤에는 도리어 잠이 없다(榮衛의 運行이 잘 되지 않음)⁶⁴⁾.”고 하였다.

또 芝山先生은 “韓醫學의 診斷方法에 大小便을 보고 병을 판단하는 이유는 五臟六腑가 생성되는 데 있어 그 矛盾의 배제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며 大便과 小便이 정상이면 身形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다. 五臟六腑가 생성되었을 때 大小便의 배출이 잘못되면 外形 자체에 이상이 생긴다. 따라서 大小便 다음에 「外形篇」이 있다⁶⁵⁾.”고 하여 五臟六腑와 大小便의 관계 및 外形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나) 外形篇

「外形篇」은 머리로부터 아래의 각 부위를 설명하고, 皮肉脈筋骨로 밖에서 안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成體의 根本인 手足을 말하고 전신을 싸고 있는 毛髮과 生殖器인 前陰과 肛門인 後陰으로 前後로 구성되어 있다.

① 外形篇 1卷

㉠ 頭

“頭部는 天谷으로 神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속에 있는 腦는 髓의 海가 된다. 그러므로 머리병인 眩暈은 腦髓가 부족해서 나타나므로 中風의 始初⁶⁶⁾”라고 하였다.

芝山先生은 “陰頭(생식기)와 陽頭(머리)는 表裏 관계에 있다⁶⁷⁾.”고 하였다.

㉡ 面

“面病은 모두 胃에 屬한다⁶⁸⁾.”고 하였다. “얼굴은 손의 三陽이 손에서 일어나 머리에 이르고, 足의 三陽이 머리로부터 뺨에 이르므로, 手足三陽의 脈이 함께 얼굴에 모인 것이다⁶⁹⁾.” 그러므로 熱한 곳이라 하겠다. “生物의 組織은 水火로써 體를 삼고 있는데, 寒한 部位는 털이 생하며, 얼굴은 熱한 部位로 털이 생하지 않는다⁷⁰⁾.”로도 알 수 있다.

芝山先生은 “大小便을 뚫어야 얼굴의 열기가 없어지고 코 주위와 관골부위가 붉은 것이 좋아진다⁷¹⁾.”고 하였다.

㉢ 眼

“눈은 五臟六腑의 精이요, 榮衛와 魂魄이 머무는 곳이요, 神氣가 생기는 곳이다. 모든 脈은 눈에 속하고 눈은 肝의 구멍이 되고 눈은 火가 없으면 病이 되지 않는다⁷²⁾.” 신경을 쓰면 눈에

6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90.

63)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716.

6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6.

65)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480.

6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25.

67)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556.

6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40.

6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39.

70) 韓長庚, 周易 正易, (주)도서출판 삼과 꿈, 서울, 2001.

71)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565.

병이 온다.

芝山先生은 “精氣가 교합해서 神이 되므로 눈은 精氣의 메모리이다⁷³⁾.” 精氣의 문제이므로 (精氣神血은 몸의 바탕이므로) 눈에 병이 오면 심하게 병이 왔다고 할 수 있다.

② 外形篇 2卷

㉠ 耳

“귀는 腎을 주관하고 腎은 精을 간직한다. 귀와 눈은 月의 바탕과 같아서 반드시 日光을 받음으로써 밝듯이 耳目도 또한 陽氣의 힘을 빌어 비로소 총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귀와 눈의 陰血이 虛하면 陽氣의 힘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여 聰明이 잃어지는 것이니 耳目의 聰明은 반드시 血氣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⁷⁴⁾.”고 하였는데, 이것을 『易學原論』에서는 ‘天地는 한 太一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人生은 萬物의 하나로서 萬物과 함께 天地의 중간에 의하여 上으로 太虛의 氣를 받고 下로 大地의 精을 취하여 써 생존하고 있으니, 易理에 太虛를 天이라 하고 大地를 地라 한다. 天이라 함은 氣의 流行하는 淵으로서 萬物을 鼓舞하는 剛健한 힘을 말함이니, 거기에는 日月 등이 依着하여 幽明 寒熱 등의 작용을 행하고, 地라 함은 精의 凝結한 球體로서 萬物을 含藏하는 柔順한 質을 말함이니, 거기에는 雷風, 水火, 山澤 등이 依着하여 動散, 潤燥, 成滋하는 등의 작용을 행하여서 만물을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天과 地는 한 太一體를 이루고 있다⁷⁵⁾.”

요약하면, 귀와 눈은 天으로 太虛의 氣로 작용하고, 입과 코는 地로 大地의 精을 만든다. 입과 코는 精을 만드는 곳이며, 귀와 눈은 精을 써먹는 곳이다.

7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245-248.

73)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 p. 260 p. 360.

7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81.

75) 韓長庚, 易學原論. 學友社, 檀紀4288, p. 1.

㉡ 鼻

“코는 神虛로 호흡하여 丹田으로 통하게 하니 곧 神氣의 出入하는 문이다. 鼻는 天氣와 통하고 입은 地氣와 통한다⁷⁶⁾.” “코와 입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입은 코의 氣로 精을 만들고, 코는 입의 精으로 氣로 작용한다. 精은 氣가 없으면 안되고, 氣는 精이 없으면 안 된다. 五臟의 大小의 경우에 코는 五臟을 말한다⁷⁷⁾.”

㉢ 口舌

“口脣은 脾에 속하여 六腑의 精華가 四白에 있다. 혀는 心의 竅로 五味를 主管한다⁷⁸⁾.”

㉣ 牙齒

“치아는 뼈의 나머지니 腎이 그 영양을 맡고 호흡하는 문호가 된다⁷⁹⁾.”고 하여 腎과 뼈의 관계를 말하였다. “上齦은 足陽明胃經의 關絡하는 곳으로 그쳐서 움직이지 않고, 下齦은 물건을 씹고 움직이는 곳이다⁸⁰⁾.” 足陽明胃經은 잘 삭히기에 잘 먹고 手陽明大腸經은 津液을 藏하는 곳이다. 上齦, 下齦은 陽明이요 치아는 腎이니 土와 水의 관계이다.

㉤ 咽喉

“喉는 天氣를 주관하고 咽은 地氣를 주관한다. 咽은 胃의 系요, 喉는 肺氣의 통하는 곳이니⁸¹⁾,” 咽은 입과 통하고 喉는 코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 頸項

“앞을 頸이라 하고 뒤를 項이라 하는데 項強의 경우는 濕에 속한다⁸²⁾.” 濕은 脾胃에 속한다. 頸項은 足太陽膀胱經에 속하니 足少陰腎經과 서로 表裏가 된다. 頸項의 병은 脾胃와 관계가 있고 腎精이 부족해서도 온다. 「神門」에 “形은 首

7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90.

77)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386.

7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96.

7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07.

8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07.

8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17.

8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30.

의 統率을 받는다⁸³⁾.”라는 말이 나오는데, 몸과 머리를 연결하는 곳이 首이다. 工字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의미이다. 斬首菴의 首가 頸項을 나타낸다.

㊦ 背

“등은 가슴의 집이니⁸⁴⁾,” 氣를 저장한 곳으로 肺에 속하지만 腎精이 부족하여 생긴다. “背痛은 勞苦의 소치⁸⁵⁾”라고 하였다. 또한 “三顯一藏이라 하여 春夏秋는 드러나고 冬은 감추는 곳이라 하였다⁸⁶⁾.” 그래서 『東醫寶鑑』에 양생하는 법에 “한해에 금해야 할 것은 겨울에는 藏해야 하므로 멀리 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⁸⁷⁾.” 마찬가지로 등은 一藏에 해당하므로 등에 병이 온 것은 精을 많이 소모하여 병이 깊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이 굽는 경우는 肺實證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腰脊은 大關節이므로 中濕으로⁸⁸⁾” 脾胃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다.

③ 外形篇 3卷

㊧ 胸

“胸이란 凶한 기운이 모이는 곳이란 의미가 있다. 가슴은 호흡이 지나가는 곳이고 음식의 통과하는 문이라 하였다⁸⁹⁾.” 그러므로 七情, 呼吸과 음식소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乳

“男腎女乳가 性命의 根本이 되는데, 특히 女子는 授乳를 함으로 중요하다. 乳房은 陽明의 통과하는 곳이고 乳頭는 厥陰에 속한다⁹⁰⁾.” 形象醫學에서 陽明形은 乳房이 발달하였고 厥陰形은 乳頭가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겉을 보고 안을 알 수 있다.

㊩ 腹

배는 河圖의 원리로 되어 있어 둥글고 따뜻하여 운행이 되어야 한다. 특히 女子가 땀을 흘리면 배가 차가워지기 쉽다. 그러므로 「腹門」은 「津液門」, 「婦人門」, 「胞門」과 관계가 있다.

㊪ 臍

“배꼽은 몸의 꼭 가운데에 위치한다. 『難經』에서는 배꼽은 生氣의 根源으로 腎間動氣, 下丹田으로 五臟六腑의 본이며 十二經脈의 根이며 呼吸의 門이며 三焦의 源이라 하였다⁹¹⁾.” 그러므로 어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소아에게 배꼽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芝山先生은 “배꼽은 生氣의 根源으로 生氣를 잃으면 어지러워지는데, 이것은 배꼽이 表裏의 軸이 되기 때문이다⁹²⁾.”고 하였다.

㊫ 腰

“허리는 腎의 집이라 하였다. 精이 부족하면 腰痛이 온다. 腰痛의 종류로 十種이 있는데, 腎虛, 痰飲, 食積, 挫閃, 瘀血, 風, 寒, 濕, 濕熱, 氣이다⁹³⁾.” 임상에서 요통의 경우에 「腰痛門」에 있는 10종 요통의 처방을 쓸 수도 있지만, 精이 부족하면 「精門」에서, 產後腰痛이면 「婦人門」에서, 또 땀을 흘려서 오는 요통이면 「津液門」에서 찾아 써야 腰痛이 치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요통을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하겠다.

㊬ 脇

“肝膽의 맥이 脇肋에 퍼져있다. 脇痛에는 氣鬱 死血 痰飲 食積 등이 있다⁹⁴⁾.” 形象醫學에서 肝膽의 부위가 발달한 走類에서 병이 나타남을 볼 수 있고, 그밖에 잘 먹는 사람에게 脇痛이

8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0.
 8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32.
 8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33.
 86) 韓長庚, 周易 正易, (주)도서출판 삶과 꿈, 서울, 2001, pp. 37,38.
 8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9.
 8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34.
 8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35.
 9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51.

9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63.
 92)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p. 464-465.
 9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365-369.
 9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71.

나타나는데 주로 입이 발달한 사람이거나 胃가 발달한 陽明에게 나타난다.

㉔ 皮

“十二經絡은 皮의 部가 되고, 또한 脈의 部가 된다⁹⁵⁾.” 이 말은 피부는 十二經絡에 관계되고, 脈은 十二經絡과 관계되니 血과 연결된다. 血은 心肝이 관장한다. 여자는 血을 위주로, 十二經絡을 위주로 살아간다. 男子는 氣를 위주로(精을 위주로), 肺腎을 위주로 살아간다. 뼈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芝山先生은 “皮膚가 건조하여 子宮이 乾澁한 것은 팔의 안쪽 부드러운 살의 燥濕 여하로 판단한다. 皮膚가 거칠면 皮膚呼吸이 안 된다. 낮에는 코로 숨을 쉬고 밤에 잠잠적에는 肛門으로 숨을 쉬는 법이다. 얼굴피부의 血色이 좋지 않은 것은 血이 나쁜 것인데 皮膚는 12經脈이 滋養하는 곳이다. 皮膚의 血色이 안 좋으면 子宮이 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子宮에 물이 부족하니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여 얼굴의 색이 좋지 않은 것이다. 妊娠하러 왔다면 皮膚를 먼저 살펴야 한다⁹⁶⁾.”고 하여 皮膚와 脈과 子宮과 十二經絡과 肛門과 榮衛와 얼굴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㉕ 肉

“脾는 肉을 주관한다⁹⁷⁾.” 소화가 잘되고 영양이 있어야 살이 찐다는 의미이다. 「脾門」, 「胃門」, 「內傷門」과 관계가 있다.

㉖ 脈

“脈은 血氣의 先이라 하여 人身의 脈은 血氣의 작용을 빌어 움직인다. 脈은 皮肉과 筋骨을 연결시켜주고, 診脈하여 五臟六腑의 強弱과 形體의 盛衰를 살필 수 있다⁹⁸⁾.” 脈은 榮衛를 주관한다. “榮衛란 經絡에 氣血이 있는 것을 말한다⁹⁹⁾.”

㉗ 筋

“筋은 肝에 속하는데 무릎은 筋의 집이 된다¹⁰⁰⁾.” 입장에서 보면, 특히 女子는 肝(血)을 위주로 하여 살아가므로 膝關節炎이 오기 쉽다. “땀을 많이 내면 근육이 쉴룩인다¹⁰¹⁾.”고 하니 「寒門」, 「津液門」과 관계되며 그밖에 「胞門」, 「婦人門」, 「內傷門」, 「虛勞門」, 「身形門」 등 여러 곳과 관계된다.

㉘ 骨

“骨이 臂에 속하며, 骨이 髓의 집이 되며, 관골이 骨의 根本이므로 광대뼈의 대소를 보고 뼈가 굵은지 가는지를 알 수 있다¹⁰²⁾.”고 하였다. “形象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形象醫學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닌 한의학 그 자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皮肉脈筋骨은 인체를 밖에서 안으로 공간적인 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④ 外形篇 4卷

㉙ 手

四肢는 모든 陽의 根本이니, 모든 陽은 四肢에서 氣를 받는다고 하였고, 四肢를 쓰지 못하는 것은 脾精이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손이 차면 배가 차고 손이 더우면 배가 덥다고 하였다. “足太陰이 脾가 되는데 三陰에 氣를 운행하고, 陽明이 胃가 되는데 三陽에 氣를 운행하니¹⁰³⁾,” 脾胃가 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丹溪는 인체가 아무런 根本이 없는 것이요, 다만 水穀으로써 생을 지속하는 법인데 대개 脾胃는 토에 속하므로 水穀을 납입하여 根本을 삼는 법이다. 胃는 水穀의 바다가 되고 脾는 消化의 역을 맡았다¹⁰⁴⁾.”

99) 成周鳳, 韓方醫學講習書, 忠南 大田, 以文社, 昭和 11년, p. 34.

10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93.

10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95.

10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97.

10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99.

10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35.

9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75.

96)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p. 658, 659.

9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84.

9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87.

芝山先生은 “이와 같이 脾胃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魚際가 푸르면 배가 차다. 그 안에 있는 臟器가 다 차다. 生理痛이나 冷帶下가 있을 수 있고 不妊도 된다¹⁰⁵⁾.”고 하였다.

㉠ 足

“脚氣는 濕熱로 말미암은 것인데, 脾胃와 大小便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¹⁰⁶⁾.” 남자는 팔을 흔들어서 달리며 여자는 발을 움직여서 팔을 흔든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달리기를 잘한다. 主客의 문제로 남녀가 다르다.

芝山先生은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風寒濕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을 물리치지 못할 경우에 사기를 받는 것이다¹⁰⁷⁾.”고 하였다. 또 다리는 風寒濕을 물리치지 못하여 風寒濕病이 오고 팔은 瑞氣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風寒濕病이 오는 것이다¹⁰⁸⁾. “四肢는 濕熱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많아도 병이고 부족해도 병이다¹⁰⁹⁾.”라고 하여 팔 다리와 風寒濕病의 관계를 말하였다.

㉡ 毛髮

“머리카락은 腎에 속하며 腎의 숨이 뿜이며 그 榮華는 髮이라¹¹⁰⁾” 하였는데 이는 男子의 경우며, “머리카락은 血이라¹¹¹⁾” 하였는데 이는 女子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濕熱이 성하여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라 하여 防風通聖散이나 酒製四物湯을 쓰게 되어 있다. 또한 머리털이 희어지는 경우는 「精門」의 延齡固本丹, 延年益壽不老丹 등을 쓸 수 있다.

芝山先生은 『너와 나의 세계』에서 “人體에

있어서 털은 나무와 같다. 濕氣가 많으면 털이 많고 濕氣가 없으면 털이 없다. 털이 많으면 성질이 급하다¹¹²⁾.” “毛髮이라는 것은 人體의 十二經脈을 유통시키는 經血의 多少를 나타낸다¹¹³⁾.”고 하였다.

㉢ 前陰

“前陰은 宗筋의 모이는 곳이며 足太陰脾의 脈과 足陽明胃의 脈이 합하는 곳이다. 또한 足厥陰肝脈과 督脈 任脈이 지나는 곳이다. 前陰은 生殖器에 속하는데 대표적인 병으로 疝證이 있다. 『內經』에서는 寒에서 얻은 것이라 하였는데 丹溪는 濕熱로 생긴다고 하였다. 治法에 二陳湯을 통용한다¹¹⁴⁾.”고 하였는데 이것은 痰飲으로 본 것이다. 「前陰門」은 「痰飲門」과 깊은 관계가 있다.

㉣ 後陰

後陰의 肛門病에 대표적으로 “痔疾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大小腸의 熱로 생기는 것이다. 暴飲하거나 暴醉後 房事로 발생한다¹¹⁵⁾.” 七情 등 다른 원인도 있지만 대개는 內傷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雜病篇

① 雜病篇 1卷

㉠ 天地運氣

“의원은 반드시 천지의 運氣를 알아야 하며, 陰陽의 氣가 昇降하고 盈虛하는 것을 보면 春夏秋冬의 차이를 알 수 있다¹¹⁶⁾.” 그러므로 절기에 따라 補中益氣湯의 季節方이 다르고(立春, 立夏, 立秋, 立冬에 따라 약을 달리 써야 한다.)

105)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508.

10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405-406.

98)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364.

108)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365.

109)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466.

11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16.

11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16.

112)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 32.

113)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 65.

11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21.

11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440-441.

11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69, pp. 456-458.

또 계절에 따라 汗吐下法을 다르게 써야함을 알 수 있다. 봄에는 吐法을 여름에는 汗法을 가을에는 下法을 써야 한다. 補陰을 하는 경우에도 虛勞의 用藥法을 보면 여름에는 六味地黃元을 쓰고, 봄, 가을에는 腎氣丸을 쓰고, 겨울에는 八味地黃丸을 쓰게 되어 있다. 즉 계절에 따라 약을 달리 쓰게 되어 있다.

㉞ 審病

병을 찾는 데 있어, “의원이 神聖工巧의 차이가 있다. 審病에는 또한 色을 살피고 얼굴에 五臟六腑의 부위가 있으니 즉, 丹溪는 이마는 心의 부위요 鼻는 脾의 부위요 口는 肝의 부위요 오른 볼은 肺의 부위요 턱은 腎의 부위라¹¹⁷⁾”고 하였듯이 얼굴을 보고 진단할 수 있다.

㉟ 辨證

“肥瘦로써 병세를 분별할 수 있는데, 肥人은 寒濕이 많고 瘦人은 燥熱이 많다고 하였다. 또 男女의 病因을 보면 男子의 병은 반드시 房勞를 살펴야 하고 女子의 병은 먼저 月經과 孕胎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¹¹⁸⁾.”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료부에 男女를 표시하는 데서 진단이 시작된다 고 하겠다.

㊱ 診脈

“脈에 神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中氣요 中氣는 胃氣를 말하는데, 胃는 水穀을 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男子와 女子는 左右脈이 다르니, 男子는 氣를 위주로 살고 女子는 血을 위주로 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肥瘦長短의 異脈을 보면 肥人은 肌膚가 두 겹기 때문에 脈이 沈하고 瘦人은 肌膚가 얇기 때문에 脈이 浮하다고 하였다. 키가 작은 사람은 脈이 짧고 키가 큰 사람은 脈이 길다. 성질이 緩하면 脈이 緩하고 성질이 急하면 脈도 急하다고 하였다. 肥人이 脈이 浮하면 감기라고

하지만 瘦人이 脈이 浮하면 陰虛라 하겠다¹¹⁹⁾.”

이와 같이 肥瘦長短에 따라 脈의 基準이 있다는 말은 바로 形象을 基準으로 하여 脈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㊲ 用藥

“治病에는 무엇보다 大小便의 不利와 中滿의 세 가지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¹²⁰⁾.”고 하였다. 大小便은 五臟六腑를 살피는 것이요 中滿은 脾胃의 문제라고 하겠다. “用藥에 胃氣를 傷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또 肥人은 氣虛하고 痰이 많아 補氣去痰하고 瘦人은 血虛有火하니 補陰瀉火해야 한다¹²¹⁾.”고 하였다.

이와 같이 用藥에도 肥瘦의 形象의 구분이 중요하다.

이상의 審病, 辨症, 診脈, 用藥으로 병을 알고 약을 쓰는 데도 아주 자세히 나눠 놓았다. 『東醫寶鑑』의 중간부분에 위치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㊳ 吐

“봄에는 吐法을 써야 하는데¹²²⁾,” 봄에는 天地의 氣運이 오르기 때문에 吐法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㊴ 汗

“여름에는 마땅히 汗法을 쓴다¹²³⁾.”고 하였다. 요즘에 지나친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이 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땀을 흘리면 補氣補血을 해야 한다. 「暑門」, 「津液門」과 관계가 있다.

㊵ 下

“가을에는 下法을 쓴다¹²⁴⁾.” 가을은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므로 그에 맞게 약을 쓰는 것이다. “下法은 補陰하는 것이다¹²⁵⁾.”

11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482-486.

12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90.

12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96.

12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98.

12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04.

12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06.

11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468-467.

11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80.

② 雜病篇 2卷

㉠ 風

“氣가 盛衰하는 경우에 보면, 나이 50이 넘으면 中風이 오기 쉽다¹²⁵⁾.”고 하였고, “肥人은 形盛氣衰하여 中風이 오기 쉬우며, 또 左半身 右半身에 中風이 오는 것은 氣虛와 血虛의 구분이 있다¹²⁷⁾.”고 말하였다. 肥白하면 氣虛하고, 瘦黑하면 血虛하니 形象에 따라 병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血脈에 的中되어 六經의 形症이 있으면 小續命湯을 加減한 것과 疎風湯으로 다스린다¹²⁸⁾.”고 하여 形象醫學에서 말하는 六經形證(陽明形, 厥陰形, 少陽形, 少陰形, 太陰形, 太陽形)이 나온다.

그밖에 “六經의 形症이 없고 大小便의 저격이 없으면 마땅히 血을 養하고 氣를 通해야 하니 大秦芫湯, 羌活愈風湯, 養榮湯 등을 쓴다¹²⁹⁾.”고 하여 六經의 形症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논하고 大小便이 通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芝山先生은 六經에 대해서, “몸통이 氣血의 통로가 되는 것은 手足太陽經은 寒水로 몸의 뒤를 행하고, 手足陽明經은 燥金으로 몸의 앞을 행하며 手足少陽經은 相火로 몸의 측면을 행한다. 그리고 手足太陰經은 濕土로 大腹에 퍼져 있으며, 手足少陰經은 君火로 小腹에 퍼져있으며 手足厥陰經은 風木으로 軟脇에 퍼져있다¹³⁰⁾.”고 하여 六經形과 經絡의 相關에 대해 설명하였다.

㉡ 寒

“霜降以後 春分에 이르기까지 寒邪에 적중하여 병이 되는 것을 傷寒이라¹³¹⁾”고 하였다. 皮肉脈筋骨로 병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傷寒이라 한다. “傷寒을 다스리려면 脈을 먼저 하고 症을 뒤로하며 雜病을 다스리려면 症을 먼저 하고 脈을 뒤로하는 것이지만¹³²⁾,” 太陽形症에 用藥하는 경우¹³³⁾, 陽明形症에 用藥하는 경우¹³⁴⁾, 少陽形症에 用藥하는 경우¹³⁵⁾, 少陰形症에 用藥하는 경우¹³⁶⁾, 太陰形症에 用藥하는 경우¹³⁷⁾, 厥陰形症에 用藥하는 경우¹³⁸⁾로 六經形證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 形象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形象醫學에서는 六經形의 形象을 말하고 있다. 그밖에 “筋이 떨리고 肉이 쉴룩거리는 경우를 보면 脈을 많이 내서 그런 것이니¹³⁹⁾,” 「津液門」, 「筋門」, 「暑門」 등을 참고해야 한다.

③ 雜病篇 3卷

㉠ 暑

“夏暑의 補氣하는 경우를 보면 生脈散¹⁴⁰⁾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脈門」, 「津液門」과 관계가 있다.

㉡ 濕

“濕에는 內濕과 外濕이 있다¹⁴¹⁾.” 濕病은 傷寒과 비슷한 경우가 있으므로 분간하여야 한다. 內濕은 脾胃와, 外濕은 風寒暑濕燥火와 관계가 있다.

㉢ 燥

“피가 부족하여 燥가 된다¹⁴²⁾.” 「血門」과 「脾胃門」, 「內傷門」과 관계가 있다.

㉣ 火

“火는 元氣의 賊이 되는데¹⁴³⁾,” 이는 신경을

12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06.
 12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
 12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509,510.
 12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12.
 12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12.
 130)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992.
 13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44.

13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45.
 13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47.
 13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49.
 13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51.
 13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54.
 13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52.
 13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57.
 13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578.
 14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02.
 14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08.
 14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14.

쓰면 피를 말린다는 의미와 통한다. 氣가 動하면 火가 되기에 「氣門」과 관계가 있다. “陽虛陰虛二證을 분별해야 하는 경우에¹⁴⁴⁾” 나오는 陽虛外寒, 陽盛外熱, 陰虛內熱, 陰盛內寒을 합쳐서 말하면 陰盛陽虛, 陽盛陰虛라 할 수 있다. 形象醫學에서 形象的으로 “陰盛陽虛란 몸은 크고 사지는 짧은 膀胱體를 말하고, 陽盛陰虛는 몸은 작고 四肢는 긴 膽體를 말하는데, 膀胱體는 드러눕기를 좋아하고, 膽體는 잘 움직인다¹⁴⁵⁾.”

이상의 風寒暑濕燥火는 外氣로서 정상적으로는 六氣로 병리적으로는 六淫이라 한다.

④ 雜病篇 4卷

㉠ 內傷

“丹溪는 사람은 근본이 없고 다만 물과 食料로서 命을 삼는다 하는데, 脾胃는 토에 속하면서 水穀을 들이는 것을 주재하니 그것이 사람의 根本이 된다¹⁴⁶⁾.”고 하였다. 그러므로 脾胃는 後天의 根本이 된다. 사람의 모든 병은 內傷에서 시작된다.

芝山先生은 “內傷의 鼻息不利는 목소리가 쉬지 않는데, 外感風寒 傷寒은 목소리가 신다¹⁴⁷⁾. 밥을 먹으면 눈을 뜨고 숨을 쉬면 귀가 뚫린다. 氣는 呼出吸納을 함으로써 榮衛가 運行되고 內傷은 寒熱虛實이 있으므로 榮衛가 運行이 된다. 胃가 차면 腸이 비고 腸이 차면 胃는 비어야 된다는 것이다¹⁴⁸⁾.”고 하여 內傷과 外感의 구분과 먹어서 榮衛가 運行된다고 하였다.

㉡ 虛勞

“虛勞란 대개 飲食이 減少하고 精神이 昏迷

하고 遺精하고 夢泄하고 腰背胸脇筋骨이 당기고 아프며 潮熱하며 自汗하고 痰盛하고 咳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皮毛, 肌肉, 筋骨, 骨髓, 氣血, 津液이 모두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¹⁴⁹⁾.” 老人(男子는 64세, 女子는 49세)이면 누구나 虛勞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단에서 나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됨을 알 수 있다.

⑤ 雜病篇 5卷

㉢ 霍亂

“霍亂은 心腹이 갑자기 疼痛하며 嘔吐 下利하며 增寒, 壯熱, 頭痛, 眩暈하는 症인데¹⁵⁰⁾,” 嘔吐와 泄瀉 등의 증상과 감별하여야 한다.

㉣ 嘔吐

“嘔吐는 脾氣가 虛弱하거나 寒氣가 胃에 客入하거나 음식에 傷해서 생긴다¹⁵¹⁾.” 內傷이 심해서 嘔吐가 된 것으로 본다.

㉤ 咳嗽

咳嗽의 종류는 風嗽, 寒嗽, 熱嗽, 濕嗽, 勞嗽, 食積嗽, 氣嗽, 痰嗽, 乾嗽, 血嗽, 酒嗽, 久嗽, 火嗽, 夜嗽, 天行嗽 등이 있다. 風寒暑濕燥火와 관계가 있고 勞嗽는 虛勞와 관계가 있으며, 痰嗽는 痰飲과 食積嗽, 酒嗽는 內傷과 관계가 있다. 氣嗽는 氣科와 관계가 있다. 喘息의 경우는 短氣와 관계가 있다. 喘息은 어깨를 들먹이고 “短氣는 어깨를 움직이지 않는다¹⁵²⁾.”

⑥ 雜病篇 6卷

㉥ 積聚

“積은 五臟에서 일어나고 聚는 六腑에서 일어난다. 積聚가 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喜怒를 조절하지 않아 臟을 傷하고 臟이 傷하면 虛해져서 風雨가 그 虛를 틈타서 생기고,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清濕이 虛를 掩襲하면 생긴다.

14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16.

14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27.

145)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42.

14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34.

147)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533.

148)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32.

14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64.

15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87.

15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93.

15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2.

졸지에 음식을 과도히 하면 脹滿하고起居가 조 절되지 않으며 힘을 쓰는 것이 도에 지나면 陽絡脈이 傷하고 陰絡脈이 傷하고 腸胃의 絡脈이 傷하면 積이 된다. 그러므로 積聚가 생기는 것은 七情, 內傷, 過勞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53).”

㉞ 浮腫

“모든 濕과 腫滿하는 것이 다 脾土에 속한다. 浮腫이란 皮와 肉이 같이 붓고 누르면 움푹 들어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水腫은 脾가 虛하고 濕이 勝하여 어기고 단쳐서 물이 정상적으로 運行을 못하여 全身을 통하여 面目과 手足이 다 浮腫하는 것이다. 浮腫이란 눈 밑이 부어야 만이 浮腫이다. 腎은 水氣를 주관하므로 腎과 脾의 관계가 깊다. 治法은 마땅히 心經의 火를 맑히고, 脾가 運化의 職을 主宰하는 것을 도와주면 肺氣가 下降하고 水道가 開通하게 된다. 發汗과 利小便해야 한다(154).”

㉟ 脹滿

“脹滿이란 배가 붓는 것이다. 그 원인은 七情, 六淫, 房勞過度로 脾胃가 運化하지 못하여 衛氣가 순환하지 못하는 것이니, 즉 十二經絡이 運行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脹滿은 瀉하여야 낫는다. 肥人은 濕으로 오고 瘦人은 熱로 해서 온다(155).”

㊱ 消渴

“胃와 大腸에 熱이 맺혀서 津液을 없애서 온다. 渴한 것은 心의 熱로 인한 것이다. 心은 便과 汗을 主管한다(156).”

㊲ 黃疸

“濕熱로 小便不利한 黃疸이 온다. 黃疸, 酒疸, 穀疸, 女勞疸, 黃汗의 구별이 있다(157).”

15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741.
15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759-761.
15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769-771.
15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777-778.

이상의 霍亂, 嘔吐, 咳嗽,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疸이 온 것은 몸 안팎이 다 상해 깊어진 병임을 설명하였다(158).

㊳ 雜病篇 7卷

㉞ 瘧瘧

“여름의 더위에 상하면 가을에 寒熱往來하는 瘧瘧이 온다(159).” “瘧瘧은 양방에서 말하는 瘧疾이 아니다. 반드시 말라리아로 해학이 오는 것이 아니다. 임상에서 寒熱往來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주로 人蔘養胃湯에 柴胡, 黃芩 1돈이나 小柴胡湯을 주로 쓴다(160).”

㉟ 瘧疫

“겨울에 寒에 상하면 봄에 반드시 瘧病을 앓는다(161).” 겨울에는 精을 藏해야 하는데 멀리 여행하거나 지나친 운동을 하면 精을 손상하여 봄에 瘧病을 앓는데, 보통 감기와는 다르다.

㊱ 邪祟

“視聽言動이 다 亡한 症을 말한다(162).”

㊲ 雜病篇 8卷

㉞ 癰疽

“六腑가 和하지 못하면 留結하여 웅이 된다. 억울한 것이 마음을 상하거나 消渴이 오래되면 다 癰疽를 발한다(163).” 그러므로, 癰疽는 消渴과 虛勞 등을 살펴야 한다. “癰疽는 熱이 血을 이긴 것이다(164).” “肺癰, 心癰, 肝癰, 腎癰, 胃脘癰(165)”은 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암은 한

15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787-788.
158)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 들녘, 서울, 2003, p. 11.
15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798.
16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808.
16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813.
16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823.
16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829.
16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830.
16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848-850.

의학에서는 消渴과 관계가 있다. “癰疽 발생의 순서는 煩渴, 嘔逆, 痰盛, 寒熱, 作痛 泄瀉이다.¹⁶⁶⁾”

㉑ 諸瘡

여러 가지 皮膚病을 뜻한다.

이상의 癩瘡, 瘰癧, 邪崇, 癰疽, 諸瘡은 괴이하고 고약한 병을 말하였다.¹⁶⁷⁾

㉒ 雜病篇 9卷

㉓ 諸傷

몸에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다.

㉔ 解毒

각종 毒을 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㉕ 救急

응급처치법에 대한 내용이다.

㉖ 怪疾

괴이한 疾病에 대한 내용이다.

㉗ 雜方

여러 가지 민간요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상의 諸傷, 解毒, 救急, 怪疾, 雜方은 응급상황의 발생과 해결에 대해 말하였다.¹⁶⁸⁾

㉘ 雜病篇 10卷

㉙ 婦人

「婦人門」은 妊娠하고 妊娠과 出產 후의 섭생과 조리하는 약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妊娠하기 위해서 婦人은 經度가 고른 것을 요구하고, 無子한 婦人이 여위고 怯한 자는 子宮이 乾澁한 것으로 보아 마땅히 陰을 불리고 血을 길러야 하며 肥盛하여 몸의 기름이 子宮에 가득 차서 넘치는 症은 마땅히 濕을 運行하고 痰을

燥하게 하여야 한다.¹⁶⁹⁾”고 하였다.

不妊의 경우에 한 예로 七情이 傷한 경우는 調經種玉湯¹⁷⁰⁾을 쓸 수 있는데 形象醫學에서는 눈이 올라가거나 눈가에 주름이 많은 경우는 心を 많이 쓰는 경우로 보아서 調經種玉湯을 쓴다. 心은 火로 火가 피를 말리면 陰血이 부족해진다. “婦人은 陰血의 결집체로 氣가 血보다 盛하면 孕胎하지 못한다.¹⁷¹⁾”고 하였다.

㉚ 雜病篇 11卷

㉛ 小兒

“차라리 男子 열 명을 다스릴지언정 한 婦人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차라리 열 부인을 다스릴지언정 한 소아를 다스리기가 어렵다.¹⁷²⁾”고 하였다. 形象醫學에서 노인과 소아는 같이 보는데 五臟六腑의 조문을 많이 사용한다. 다만 小兒는 자라는 과정이니 衡平만 잡아주면 되고 老人은 형틀이 무너지는 시기이니 「虛勞門」이나 「身形門」을 많이 참고한다.

라) 湯液篇

① 湯液篇 1卷

㉜ 湯液序例

“氣味の 昇降을 보면 陽은 氣가 되고 陰은 味가 되며 陽氣는 위의 孔竅로 나가고 陰氣는 밑의 孔竅로 나간다. 위의 孔竅는 소변이며 아래의 孔竅는 大便이다. 小便은 陽氣의 運行을 보며 이는 五臟의 運行을 말한다. 大便은 陰血의 運行을 보며 이는 六腑의 運行을 말한다. 하늘에 陰陽이 있으니 溫熱은 陽이며 涼寒은 陰이요 땅에도 陰陽이 있으니 辛甘淡은 陽이며 酸苦鹹은 陰이다.¹⁷³⁾” 코로는 呼吸하니 寒熱溫涼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슴을 말한다.(肺는

16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p. 862-863.

167)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 들녘, 서울, 2003, p. 11.

168)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 들녘, 서울, 2003, p. 11.

16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954.

17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957.

17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996.

17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006.

17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091.

五臟의 長이다.) 입으로 먹어서 精을 만드니 酸苦甘辛鹹의 五味가 여기에 해당된다.(배는 六腑이다) 사람은 먹어서 氣味를 섭취하여 하늘과 땅의 기운을 섭취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인체를 小宇宙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水部

“하늘이 사람을 낳으면 水穀으로써 조양하니 물이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天 一이 水를 나옴으로 水를 首篇에 실는다174.”고 하였다.

㉡ 土部

“土가 萬物의 母體가 되는 까닭으로 土를 水의 다음에 실는다175.”고 하였다.

㉢ 穀部

“天地가 사람의 생명을 기르는 것이 오직 穀食뿐이니 土의 德으로서 氣의 中和를 얻는 까닭으로 그 맛이 甘淡하고 性이 和平하여 크게 補하고 滲泄하여서 常食하여도 싫어함이 없으니 이것이 사람에게 큰 공덕을 이바지하는 것이다. 곡식은 四季節의 春夏秋冬의 기운을 가장 고르게 받은 것이다. 五味를 한가지만 편식하면 養生에 이롭지 못하다176.”고 하였다.

㉣ 人部, 禽部, 獸部

“人部는 사람 몸에서 나온 藥이며, 禽部는 날아다니는 짐승을 말하며, 獸部는 네발을 가진 짐승을 말한다177.”

㉤ 湯液篇 2卷

㉠ 魚部, 蟲部, 果部, 菜部, 草部

“魚部는 민물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 蟲部는 새도 짐승도 아닌 여러 미물, 果部는 나무에서 여문 열매, 菜部는 나물과 푸성귀, 草部는 약에 쓰는 풀을 약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다178).”

㉢ 湯液篇 3卷

㉠ 草部, 木部, 玉部, 石部, 金部

“木部는 약으로 쓰는 나무, 玉部는 여러 가지 구슬, 石部는 여러 종류의 돌, 金部는 여러 종류의 돌을 말한다179).”

마) 鍼灸篇

㉠ 鍼灸

침뜸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 써 있다. 『東醫寶鑑』의 鍼灸篇은 비교적 간략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각 편의 항목마다 鍼灸法이 있는 것을 보면 임상에 필요한 것은 다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실용성에 근거해서 편찬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2. 『東醫寶鑑』 目次의 獨創性

1) 『東醫寶鑑』의 編纂動機

『東醫寶鑑』 序文에 나타나듯이 黃帝 岐伯에서 유래된 醫學이 그 후에 수많은 학파가 이어서 일어나 학설들이 어지러이 생겨나자 그 실마리가 되는 것만을 표절하여 다투어 학파를 세워 책을 많아졌지만 醫術은 더욱 혼미해졌다. 그러므로, 선조와 이정구 등은 쓸데없는 醫學理論이나 處方의 亂舞를 정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래서 동아시아 醫學을 정리하려 하였다. 특히, 心身修養을 우위에 둔 醫學, 醫學經典에서 근거를 찾고 변통할 수 있는 醫學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또 한가지는 국산약(鄉藥)의 정리였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있어서 근본적인 정리를 통해서만이 그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180).

17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097.
17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100.
17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102.
177)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 들녘, 서울, 2003, p. 12.

178)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 들녘, 서울, 2003, p. 12.
179)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 들녘, 서울, 2003, p. 12.
180)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2) 『東醫寶鑑』의 編纂의 特性

“朝鮮時代に 편찬된 『鄉藥集成方』이나 『醫方類聚』를 이어받아 『東醫寶鑑』은 中國醫學을 토착화한 결정판이다. 分門類聚하여 자주적으로 수용하였다¹⁸¹⁾.” “윤창열은 『東醫寶鑑』의 위대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하였다. 첫째, 活用に 實用的이다. 증상만 알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당시까지의 모든 醫書의 核心과 精髓만 발췌하였고 조리가 정연하다¹⁸²⁾.”

“『東醫寶鑑』은 보통 醫書와 달리 모든 대목마다 일일이 引用文獻을 밝히고 있다. 許浚은 醫學經典의 전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既存의 그릇됨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 즉, 既存 學說과 처방을 가지런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精氣神을 중심으로 하는 道家의 養生學的 身體觀과 구체적인 疾病의 症狀과 治療法을 위주로 한 醫學의 傳統을 높은 水準에서 하나로 統合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生命과 身體, 自然環境과 人間의 疾病, 疾病의 治療를 하나의 有機的인 體系 안에서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양생과 醫學傳統을 結合하여 身體觀을 정립하고 그 身體觀에 따라 각종 몸의 部位와 疾病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東醫寶鑑』은 동아시아 醫學의 歷史에서 獨特한 地位를 차지한다. 이런 種類의 醫書가 없었기 때문이다¹⁸³⁾.”

3) 『東醫寶鑑』 目次의 特性

가) 形象으로 構成

“目次に 나타난 몸밖의 여러 부위를 하나로 묶은 「外形篇」, 몸안의 여러 구성물을 하나로 묶은 「內景篇」,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로

묶은 「雜病篇」 등으로 정리한 것을 한의학 역사상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것으로 대개의 漢醫書들이 疾病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東醫寶鑑』은 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¹⁸⁴⁾.” 즉 저자인 許浚은 병에 앞서 몸을 보는 입장에서 『東醫寶鑑』을 구성했다는 말이 된다. 몸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形象을 중요시한다는 말이 된다. 『東醫寶鑑』의 集例에 “인체의 구성은 안으로 五臟六腑가 있고 筋骨, 肌肉, 血脈, 皮膚가 있어 그 形態를 이루고, 精氣神이 臟腑와 百體의 主가 된다¹⁸⁵⁾.”고 하였다. 책에서 첫머리가 중요하듯이 맨 처음에 나오는 身形臟腑圖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것은 글로 뜻을 다 전달할 수 없으므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身形臟腑圖는 “朱肱의 『南陽活人書』에서 楊介의 眞存圖를 인용하여 몸안과 겉의 그림을 각기 內景圖, 外境圖라 이름 붙였다. 『東醫寶鑑』이 많이 참조한 공정현의 『萬病回春』이나 李梴의 『醫學入門』에도 비슷한 그림이 실려있다. 『東醫寶鑑』안의 身形圖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¹⁸⁶⁾.” 身形臟腑圖는 人體를 전체적으로 나타냈다. 몸 바깥에 머리와 몸통부위가 있다. 머리에는 눈, 코, 귀, 입이 있고, 몸통에는 배꼽이 있다. 이 밖에도 음식과 공기가 안으로 통하는 길인 咽喉가 있다. 몸 안에는 五臟인 肝, 心, 脾, 肺, 腎이 있고 六腑 중 胃, 小腸, 大腸, 膽, 膀胱 등 다섯 腑가 있다. 六腑 중 하나인 三焦는 특정한 부위가 없으므로 그려져 있지 않다. 이 밖에도 각기 大便과 小便이 통하는 길인 穀道와 水道가 그려져 있다. 몸 안의 器官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척추의 三關 부위인데, 養生을 위해 氣를 수련할 때 精氣가 오르는 길이다. 척추 맨 아래 부분을 尾閭關 중간부분을 轆轤關 맨 위

80-83.

181) 한 대희, 허준은 살아 있다, 수서원, 서울, 2000, pp. 11-13.

182) 한 대희, 허준은 살아 있다, 수서원, 서울, 2000, pp. 41.

183)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 152.

184)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 178.

18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5.

186)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180-181.

부분을 玉枕關이라 한다. 玉枕關은 精神 활동을 주관하는 腦髓海로 연결된다. 이 그림은 몸 안에서 氣의 통로가 어떻게 비롯되며, 그것이 어떻게 五臟六腑 등과 연결되는 지를 나타낸 것이다¹⁸⁷⁾.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배꼽주위를 과도치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배에서는 律動作用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며, “腦는 髓海임을 보여주고 脊椎는 尾閭關, 軀軀關, 玉枕關으로 精氣의 升降하는 길을 나타내고 있다¹⁸⁸⁾.” 芝山先生은 “이 그림은 人間의 側面圖이다. 사람의 앞은 땅이요, 사람의 등은 하늘이다. 하늘과 땅을 봉합한 것이 側面이다. 이 그림이 있기에 한 의학이 처음 생겼다¹⁸⁹⁾.”라고 하였다. “『東醫寶鑑』의 이 身形臟腑圖는 허준이 龔廷賢의 萬病回春의 側身人圖¹⁹⁰⁾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허준이 중점을 둔 것은 생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몸 안의 氣와 精神을 수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체를 통하여 구현된다¹⁹¹⁾.”고 보았다. 『東醫寶鑑』은 身形臟腑圖를 처음으로 하여 形象을 중심으로 目次가 구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身形臟腑圖는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目次는 形象을 위주로 되어 있다.

나) 목차의 구성

같은 시대의 명의 양예수는 『醫林撮要』를 교정했으며, 『東醫寶鑑』의 골격을 잡는데 기여했다고 보인다¹⁹²⁾. 『東醫寶鑑』은 보통 醫書와는 달리 모든 대목마다 일일이 引用文獻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醫學經典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東醫寶鑑』의 전체 目次는 유기적인 세계를 나타내었다. 『東醫寶鑑』의 각 문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¹⁹³⁾. 『東醫寶鑑』 25권 중 2권을 차지하는 目次는 간단한 단어와 개념에서 시작하여 本文의 깊은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충실한 안내자 구실을 하고 있다. 한가지 덧붙이면 책의 구성이 뛰어나다. 『東醫寶鑑』은 무려 2천여 가지의 病症, 1400종의 藥物, 4천여 가지의 處方, 수백 가지의 養生法과 鍼灸法 등을 망라했다. 규모만 따진다면 이보다 더 방대한 저작이 적지 않다. 『聖濟總錄』, 『醫方類聚』, 『普濟方』 등이 그것이다. 『普濟方』에는 무려 6만여 가지 처방이 실려 있다. 그러나, 병증과 치료법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책들은 『東醫寶鑑』의 수준에 턱없이 뒤떨어진다. 요령있는 處方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정현의 『壽世保元』과 『萬病回春』, 우단의 『醫學正傳』이 눈에 띈다. 그러나 규모가 『東醫寶鑑』처럼 전면적이지 않다. 李梴의 『醫學入門』은 『東醫寶鑑』에 필적할만한 규모인데다 쉽게 病症과 그에 알맞은 處方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醫學分野를 포괄하는 안목과 각 항목을 짚어내는 세기에서 許浚에 뒤져있다. 즉, 물거울 편집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東醫寶鑑』이 당시 동아시아 醫學을 종합한 醫書 중 최고봉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¹⁹⁴⁾.

3. 形象醫學과 『東醫寶鑑』 目次의 상관성

『東醫寶鑑』의 전체 目次는 形象으로 이루어졌으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위에서 밝힌바 있다. 여기서는 形象醫學의 기본적인 관

187)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34-35.

18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

189)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 11.

190) 龔廷賢, 增補 萬病回春, 杏林書院, 서울, 1972, p. 32.

191)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36-37.

192)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 51.

193)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 183.

194)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205-207.

점과 形象의 분류, 인체 각 부분의 상호관계, 『東醫寶鑑』 目次의 意味 등을 통하여 그러한 『東醫寶鑑』의 目次가 形象醫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形象醫學의 基本的인 觀點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있어서 기본특징으로 整體觀을 들 수 있는데, 人體는 하나의 有機的인 整體이다. 臟象學說을 보면 五臟을 중심으로 각 臟과 腑의 經絡이 서로 絡屬하고 陰과 陽이 짝이 되어 表裏를 이루며, 五臟은 皮肉脈筋骨의 形體, 그리고 舌鼻口目耳二陰 등의 官竅와 서로 연결되어 整體를 이룬다. 五臟은 또한 喜怒憂思恐의 情志活動과 연결되어 整體를 이룬다. 이로써 人體는 五臟을 중심으로 하고 經絡系統을 통하여 안으로 臟腑에 屬하고 밖으로 肢節에 絡하는 연결작용을 함으로써 內臟, 形體, 五官九竅, 四肢百骸 등 전신의 각 조직기관이 연결되어 하나의 有機的인 整體를 이룬다¹⁹⁵⁾. 이와 같이 人體는 有機的인 整體를 이루고 있음으로 전체 속에 部分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形象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形象醫學에서 사람을 보는 觀點은 男女(肥瘦, 黑白, 長短, 剛柔)와 精氣神血科, 五臟六腑, 魚鳥走甲類, 六經形 등이다. 이들의 상관관계는 얼굴에 있어서 精氣神血科는 받으며 五臟六腑는 씨앗이다. 몸에 있어서 五臟六腑는 씨앗이며 魚鳥走甲類는 몸으로 발현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얼굴에 있어서 五臟六腑와 魚鳥走甲類를 살필 수 있다. 예로 코를 金으로 볼 때는 五臟六腑로 보는 것이며, 냄새를 잘 맡는 走類(肝)로 보는 것은 魚鳥走甲類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六腑는 體이며 魚鳥走甲類는 用이라 하겠다. 六經形은 어느 經絡을 위주로 되었는가를 보는 것이다. 男女는 不變과 變化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不變으로 우선 生殖器

상의 男女가 있고, 變化로써 肥瘦, 黑白, 長短, 剛柔로 보는 男女가 있다¹⁹⁶⁾.”

다음은 芝山先生의 사상을 중심으로 『東醫寶鑑』의 目次를 연구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가) 形象의 重要性

“한 사물을 놓고 보는 학문적 시각도 동양은 통체에서 부분으로 연화하여 분석해 나가는 종합적인데 비해 서양의 학문은 부분을 통해서 통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¹⁹⁷⁾.” 흔히, 서양은 국소적인데 동양은 종합적이란 말도 한다. 醫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알 수 있고,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形象을 본다는 것은 통체와 개체를 함께 본다는 것이다¹⁹⁸⁾.” 이와 같이 形象은 중요하다.

“병이란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얼마나 고치기 쉽겠는가?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 아픈 약만 쓰면 되는데, 이 환자는 여러 증상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그것을 풀어서 고치는 方편을 變通이라 하고 病因을 찾는 것을 窮理라 한다¹⁹⁹⁾.” 호소하는 증상이 많을 경우엔 症狀를 위주로 하여 處方을 구하려 하면 잘 모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症狀이 錯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形象을 모르면 息을 찾기가 어렵다. 이 여자의 경우에는 陰部癢痒症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陰頭(생식기)와 陽頭(머리)는 상통하므로 陰部가 나쁘면 얼굴의 耳目口鼻가 다 나빠지게 되어 있다²⁰⁰⁾.

196)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2, p. 20.

197)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 213.

198)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 58.

199)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5.

200)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4.

195) 배병철 편, 기초한醫學, 성보사, 서울, 1997, p. 32.

사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症狀이란 복잡하게 錯綜되어 있기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첫째로 形象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로는 形象의 相互關係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 形象의 相互關係

“存在物은 四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²⁰¹⁾, “四象이란 形態, 色, 機能, 性情으로 形態란 精氣神血科를 나타내며, 色이란 五臟六腑를 나타내며, 機能이란 魚鳥走甲類를 나타내며, 性情이란 六經形을 나타낸다²⁰²⁾.” 이와 같이 사람은 여러 가지 形象으로 이루어져 있다.

“四象 속에 五行이 있고 五行 속에 四象이 있다²⁰³⁾.”고 하였는데 이 말은 “몸속의 五臟六腑가 얼굴에서는 耳目口鼻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고 五臟六腑의 상태를 알 수 있으니, 한의학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한 形象醫學의 근거가 된다. 또 耳目口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입이란 흠어지는 곳이니 모이지 못하면 병이다. 침을 흘리거나 토하면 병이 된다. 둘째 코는 모이는 곳이니 흠어지지 못하면 병이 된다. 셋째 눈이란 모이는 곳이니 精氣가 交合하는 곳이니 모이지 못하면 초점을 못 맞추게 된다. 亂視, 遠視, 近視가 생기고 外障, 內障 등이 생긴다. 넷째 귀는 모이는 곳이니 흠어져야 한다. 통명되어야 한다. 그 래야 들을 수 있다²⁰⁴⁾.”

“인체의 構成은 精氣神血, 五臟六腑, 外形, 經絡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⁰⁵⁾.”고 하여 統體와 部分

에 대해 말하고 있다. “五臟의 長은 肺가 되고, 五臟六腑의 長은 心이며 精氣神血의 元은 脾가 되며 木火土金水の 運動(呼吸운동)의 軸은 肝이며, 臟腑生成原理의 根源은 腎이다²⁰⁶⁾.”

“脾臟이란 人身을 保護하고 運營해 가는 것을 말한다. 天의 四象은 五官機能이 있어서 人體를 保護하고, 地의 四象은 四肢가 있음으로써 人體를 營爲하여 物의 生存行爲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脾氣가 虛하면 四肢를 쓰지 못하고 五臟이 不安하며²⁰⁷⁾…….”라고 하여 天의 四象은 耳目口鼻(心脾肝腎의 竅)이며, 地의 四象은 四肢(心脾肝腎의 惝)로 四象을 運轉시키는 것이 脾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形이란 말은 精氣神血의 形象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色이란 藏象論에 입각해서 말한 것이요, 脈이란 經絡과 身形을 가리켜서 한 말이요, 症이란 形色脈이 五運六氣에 의해서 어떻게 발현되어 나오느냐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泄瀉를 한다는 것은 五臟이 나빠서 오는 것인데, 50이 넘어서 陰陽氣血이 나빠서 오는 것이니, 脾臟을 돌구는 약을 써서 形氣를 잡아 주어야 한다²⁰⁸⁾.”

“軸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머리와 몸을 上下로 하면 목이 軸이 되고 前後로 하면 가슴이 軸이 되고, 四肢로 보면 中腕이 軸이 되고, 表裏로 보면 배꼽이 軸이 된다. 그래서 軸이 나쁘면 어렵다. 첫째, 上下가 나쁘다는 말은 몸과 머리가 衡平을 잡고 있는가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둘째, 前後的 軸은 가슴의 膈中이 된다. 膈中에는 神明之官인 心과 氣의 바다인 肺가 들어 있으므로 膈中이 나빠 생긴 병은 七情鬱結과 氣痰으로 인하여 頭眩, 惡心嘔吐, 心悸, 寒熱往來, 流

201)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6.

202)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 석사논문, 2002, p. 20.

203)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303.

204)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890.

205)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8.

206)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346.

207)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507.

208)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719.

注作痛하는 증이 생긴다. 셋째, 手足은 成體의 根本인데 手足의 축은 中腕이다. 그러므로 中腕이 나쁘면 어지럽고 手足이 저리다. 주로 內傷에서 많이 온다. 넷째, 表裏가 나쁘다는 말은 臍가 나쁘다는 말이다. 배꼽은 全身의 半에 위치해 있다. 배꼽은 生氣의 根源이기 때문에 生氣를 잃으면 어지러워진다. 이것은 軸을 중심으로 보고 말한 것이다²⁰⁹⁾.”

“얼굴이 넓적하여 前面이 발달한 것은 膀胱體이다. 반면에 얼굴의 側面이 발달한 것은 膽體이다. 膽體는 風寒濕을 배제하기 어렵고, 膀胱體는 風寒濕을 잘 배제한다. 임상에서 膀胱體에게 風寒濕病이 잘 온다²¹⁰⁾.”라고 하여 얼굴의 前面과 側面의 발달과 風寒濕病을 말하고 있다.

“太陽形에는 九味羌活湯을 쓰고, 太陰形에는 藿香正氣散을 쓰고, 少陽形에는 小柴胡湯, 厥陰形에는 五積散, 陽明形에는 葛根湯, 少陰形에는 芎芷香蘇散을 쓴다. 만약 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通用方으로 九味羌活湯을 쓴다. 이와 같이 같은 감기라도 유형에 따라 쓰는 약이 다르다²¹¹⁾.”라고 하여 六經形의 감기약을 말하고 있다.

이상으로 『東醫寶鑑』의 目次를 研究하는 이유에 대해 芝山先生은 첫째로 形象의 重要性을 들고 있는데 形象은 統體와 個體를 함께 보는 방법이며, 실지로 임상에서 호소하는 증상이 많을 경우엔 症狀을 위주로 하여 處方을 구하려 하면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症狀이 錯綜되어 있기 때문에 形象을 모르면 흠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로 形象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形象 상호간에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東醫寶鑑』의 目次는 形象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형상의학에서의 형상의 분류이다

2) 形象의 분류

形象醫學에서 形象의 分類는 男女(肥瘦, 黑白, 長短, 剛柔), 精氣神血科, 五臟六腑, 魚鳥走甲類, 六經形, 膽體 膀胱體 등이다.

가) 男女(肥瘦, 黑白, 長短, 剛柔)

“男子는 陽에 속하여 氣가 흠어지기가 쉽고, 女子는 陰에 속하여 氣가 많이 鬱滯한다. 그러므로 男子는 氣病이 항상 적고 女子는 氣病이 항상 많은 법이다. 治法은 女人은 언제든지 血을 調養하면서 그 氣를 소모시켜주고, 男子는 氣를 調養하면서 血을 養해야 한다. 男子는 病이 陽이 虛해서 오고 女子는 陰이 虛해서 온다²¹²⁾.” 이와 같이 男子와 女子는 그 生理病理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形象醫學에서는 예를 들어, 剛柔의 입장에서 男子는 뼈가 발달하였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女子가 뼈가 발달하였다면 그 순간만큼은 男子로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앞의 경우인 生殖器上의 男女를 不變의 입장이라면, 뒤의 경우를 變化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다²¹³⁾.”

나) 精氣神血科

“『東醫寶鑑』의 첫머리는 「精門」, 「氣門」, 「神門」, 「血門」으로 시작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形象醫學에서 보는 精氣神血이란 인체의 바탕이며 발이다. 얼굴전체의 모습을 말한다. 몸은 변화가 많고 머리는 변화가 적다. 그런 의미에서 精氣神血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입으로는 精을 만들고, 코는 호흡하여 氣를 만들고, 눈은 精氣가 교합하여 神을 밝히고, 귀로는 血을 養한다. 精이란 인체의 根源이 되는

209)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463.

210)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93.

211)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249.

21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7.

213)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2, p. 20.

것이며, 氣란 精을 만드는 기운이란 의미이며, 神이란 그러한 精氣가 작용하는 것이며, 血이란 이러한 精氣神이 모두 있어서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이룬 것을 의미한다. 精氣神血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精科, 氣科, 神科, 血科라고 한다. 天圓, 地方, 人角이란 말이 있는데, 하늘은 둥그니 얼굴이 둥글면 精科인데, 精이 잘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땅은 네모나니 얼굴이 네모나면 잘 돌아가지 않으니 精이 잘 형성되지 않으므로 氣科라고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원과 네모의 중간은 三角形밖에 없다. 하늘기운이 많은 逆三角形은 神科, 땅기운이 많은 三角形은 血科이다. 이것을 李正來의 『相學眞傳』에서는 天形, 地形, 人形으로 구분하여 營養質, 筋骨質, 心性質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²¹⁴⁾.”

形象醫學에서 精科, 氣科, 神科, 血科의 구분과 『東醫寶鑑』의 目次가 「精門」, 「氣門」, 「神門」, 「血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다) 五臟六腑

『東醫寶鑑』의 目次는 精氣神血門 다음에 五臟六腑가 나와 있다. “五臟六腑는 얼굴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精氣神血의 바탕 속에 어떤 씨앗이 심어져 있는가? 몸에는 五臟六腑가 숨겨져 있지만 얼굴에는 耳目口鼻의 大小, 高低, 剛柔, 正偏이나 色으로 나타난다²¹⁵⁾.” 五臟六腑는 몸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이것을 芝山先生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五臟의 長은 肺가 되고 五臟六腑의 長은 心이며 精氣神血의 元은 脾가 되며 木火土金水の 운동(呼吸운동)의 축은 肝이며, 臟腑生成原理의 根源은 腎이다²¹⁶⁾.”

“人體에 있어 제일 높은 계위에 있는 것이 肺요, 그 다음이 心臟이다. 心은 君主와 같은 역할을 하고, 肺는 治理調節하는 國父와 같은 역할을 한다. 人體 內的 五臟六腑, 身形, 血脈, 經脈 등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준다면 모든 활동은 순조로울 것이다. 모든 것을 治理調節하는 것은 山이다. 山은 人體에 있어서 肺이다. 즉, 肺는 신형에서는 머리가 金이기에 肺에 속하고 氣에 있어서는 呼吸의 根源이 되고 耳目口鼻에 있어서는 코가 얼굴의 한가운데에 붙어서 東西南北의 方位를 가려주고 있고 몸에서는 外皮가 되어 온몸을 우산처럼 감싸고 있다²¹⁷⁾.” “오른 팔은 肺가 주관하고 왼팔은 心이 주관하고 왼발은 肝이 주관하고 오른 발은 腎이 주관한다²¹⁸⁾.”

라) 魚鳥走甲類

“魚類, 鳥類, 走類, 甲類는 몸이 五臟 중에서도 어느 臟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다. 五臟이 몸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魚類는 입이 발달하여 맛을 잘 알고 腎의 부위인 엉덩이가 발달하였고, 鳥類는 눈이 발달하여 잘 보고 心이 발달하였고, 走類는 코가 발달하여 냄새를 잘 맡고 다리가 발달하였고, 甲類는 귀가 발달하여 잘 들으며 등이 발달하였다. 五臟의 機能(用)을 말한다²¹⁹⁾.” 약을 쓰는 것은 五臟六腑門에서 같이 쓴다.

마) 六經形

“六經形은 『東醫寶鑑』의 「寒門」과 「風門」에 나와 있다. 形象醫學에서 六經形은 陽明形, 厥陰形, 太陽形, 太陰形, 少陰形, 少陽形이다. 어느 경락을 위주로 발달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肝과 肺는 氣血의 운행을 주관하는데, 肝은 血을

214)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2, pp. 20-21.

215)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2, p. 24.

216)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346.

217)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p. 142-143.

218)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046.

219)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2, p. 25.

운행하고 肺는 氣를 운행한다. 눈은 血을 소모하고 코는 氣를 소모하는데, 눈과 코의 기세를 보아서 少陰形, 少陽形, 太陰形, 太陽形을 구분한다. 그리고 陽明形은 陽明經이 발달하여 잘 먹고, 얼굴의 전면이 볼록렌즈처럼 튀어 나왔고, 눈두덩이 두둑하고 面이 넓적하고 乳房이 크고 배가 나왔다. 厥陰形은 陽明形과는 반대로 얼굴의 전면이 오목렌즈처럼 들어갔다. 특히 눈이 들어가고 乳頭가 크며 몸이 차고 추위를 탄다²²⁰⁾.”

바) 膽體, 膀胱體

몸통과 四肢를 보아서, 몸통이 발달하면 膀胱體라 하고, 四肢가 발달하면 膽體라 한다.

3) 인체 각 부분의 相互關係

인체는 크게 머리와 몸과 사지로 되어 있다. 서로의 相互關係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가) 머리와 몸과의 관계

“머리에 耳目口鼻로 五臟六腑가 운행하고 있고, 몸에서는 五臟六腑가 숨어 있다. 머리와 몸은 반대로 되어 있다.” 形象醫學에서 “사람을 해부하면 그 사람의 五臟六腑를 알 수 없고, 얼굴을 보아야 그 사람의 五臟六腑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의미이다. 한의학이 그렇게 되어 있다. “肉體가 動할 때는 精神은 靜하고, 精神이 動할 때는 精神이 靜한다. 精神은 머리에 있고, 肉體는 몸에 있다²²¹⁾.”

나) 몸과 四肢와의 관계

胃는 水穀의 바다가 된다. 五臟六腑는 모든 기운을 胃에서 받는다. 六腑인 胃는 受納作用을 하

고 胃의 經絡인 陽明經은 腐熟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腐熟시키는 작용은 三焦나 命門에 의해 이루어진다. 『靈樞·本神』에 “脾氣가 허하면 四肢를 쓰지 못하고 五臟이 不安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걸어야 만이 消化가 된다. 消化가 안되면 食後昏困의 증상이 있다. 四肢의 활동으로 胃가 六腑에 氣血을 공급한다. 六腑는 五臟에 氣血을 보낸다. 몸의 중심에 五臟이 있고, 그 五臟은 六腑에서 기운을 받고, 六腑는 胃에서 기운을 받고, 胃는 脾와 관계가 있으며, 脾는 四肢에서 기운을 받으니 四肢는 十二經絡을 말한다. “몸통과 수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몸통은 五臟이 들어 있는 곳이므로 陰이 되고, 四肢는 몸통에서 뻗어 나온 것이므로 陽이 된다. 그러므로 손가락이 나쁘다는 것은 脾胃가 나쁘다는 뜻이다²²²⁾.” “形象醫學에서 몸이 발달하면 膀胱體, 사지가 발달하면 膽體라 하는데 이는 몸과 四肢와의 관계를 논한 것이다. 膽體는 形衰氣盛·陽盛陰虛, 膀胱體는 반대이다²²³⁾.” “손은 風寒濕의 瑞氣를 받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요, 발은 風寒濕을 排除하기 위해서 걸어간다²²⁴⁾.” “몸통이 氣血의 통로가 되는 것은 手足太陽經은 寒水로 몸의 뒤를 행하고, 手足陽明經은 燥金으로 몸의 앞을 행하며, 手足少陽經은 相火로 몸의 側面을 행한다. 그리고 手足太陰經은 濕土로 大腹에 퍼져 있으며, 手足少陰經은 君火로 小腹에 퍼져 있으며, 手足厥陰經은 風木으로 軟脇에 퍼져있다²²⁵⁾.” “오른 팔은 肺가 주관하고, 왼팔은 心이 주관하고, 왼발은 肝이 주관하고, 오른 발은 腎이 주관한다²²⁶⁾.”

222)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457.

223)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42.

224)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p. 1045.

225)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992.

226)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046.

220)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2, pp. 27-29.

221)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 80.

다) 머리와 몸과 사지와와의 관계

얼굴의 耳目口鼻는 몸의 五臟六腑가 드러난 곳이다. 몸과 사지는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四肢에는 十二經絡이 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과 사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여자는 몸이 뚱뚱한 것이 흠이다. 즉 陰盛陽虛란 뜻인데 濕을 제하거나 陽氣를 돋워주어야 한다. 얼굴이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風寒暑濕燥火를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몸은 風寒暑濕燥火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이다. 또한 氣虛해서 개기름이 흐르는데 얼굴은 陽氣가 오르는 곳인데 陽氣가 오르지 못하면 外氣에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風寒暑濕燥火를 배제할 수 없다²²⁷⁾.”

4) 『東醫寶鑑』 目次의 意味

『芝山形象醫案』에 나오는 『東醫寶鑑』의 目次에 대한 意味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첫째, 醫書의 처음부터 끝이 모두 咳嗽를 고치는 처방이 나오지만 가장 보편적인 體系로 目次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雜病篇」에 「咳嗽門」을 만들어 놓았다. 雜病을 알려면 統體를 알고 部分을 알아야 한다²²⁸⁾.

둘째, 나이가 女子 14세, 男子 16세 이하면 先天病으로 보고 대개 『東醫寶鑑』의 앞부분에 나오는 處方을 쓴다. 그리고 中年의 사람들은 주로 內傷이나 七情의 처방들을 많이 쓰고 50-60세가 넘으면 「虛勞門」 등의 처방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환자의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處方을 쓰기도 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治療率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나이를 쓸 때 단순히 빈칸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써 먹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기계가 많이 닳았으니

補해주고 기운을 조금 보충해주는 것이다. 완전히 낫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²²⁹⁾.

셋째, 「胞門」에서의 生化란 男子의 精을 받아 들여서 妊娠을 하느냐 못하느냐? 에 반하여 「婦人門」은 妊娠하여 아이를 낳는 것, 창조에 대한 문제이다. 「胞門」은 창조이전의 미혼여성에 해당하고 「婦人門」은 창조이후의 이야기로 기혼여성에 해당한다²³⁰⁾.

넷째, 精氣神血病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의 運行으로 나타난다. 手足에 땀이 나는 것은 精氣神血의 運行이 되지 않아서 津液이 새는 것이다²³¹⁾. 키를 크게 하려면 人體의 根本인 精氣神血의 矛盾인 津液을 막아주어야 한다²³²⁾.

形을 돌귀준다는 얘기는 血을 돌군다는 말인데, 不眠症도 精氣神血이 나빠서 오면 「夢門」의 藥을 쓰지만, 五臟六腑가 不和되서 오면 大小便을 通利시켜주면 된다. 예를 들어 저녁에 小便을 자주 봐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小便短少를 치료해주면 잠을 잘 수 있다²³³⁾.

大小便을 자주 본다는 것은 五臟六腑의 運行이 안 되는 것이다²³⁴⁾.

다섯째, 난소수술을 받아서 머리가 아픈데 食積으로 보아 正傳加味二陳湯을 써도 頭痛이 없어진다. 子宮이 나빠서 오는 頭痛이다. 頭痛에 반드시 頭痛藥만 써서 낫는 것은 아니다²³⁵⁾.

不妊에 月經의 異常과 함께, 胞는 衝任脈과 胃經과 연계되므로 乳房, 얼굴, 입술, 咽喉 등에

227)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731.

228)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00.

229)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387.

230)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2.

231)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585.

232)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703.

233)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716.

234)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190.

235)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401.

이상반응이 오면 胞의 질환으로 보고 치료하면 된다. 月經時 乳房痛에는 濟陰丹, 面色이 나쁘면 옥약계영환, 입술이 벗겨지면 溫經湯, 목이 부으면 心氣가 통하지 못한 것이니 通經湯을 쓴다. 疝證은 「前陰門」의 질환이지만 이것도 任脈의 병이므로 氣科, 厥陰形, 난대의 차이, 鼻孔이 드러난 경우에 나타난다²³⁶⁾.

여섯째, 腰痛도 네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精氣神血이 나쁜 경우, 五臟六腑가 나쁜 경우, 身形이 나쁜 경우, 五運六氣에 상응하지 못해서 온다²³⁷⁾.

일곱째, 눈은 精氣의 메모리요, 코는 氣의 出入處요, 입은 精을 受納하는 곳이다. 그래서 입은 受納하는 곳이기에 胃로 보고, 코는 氣가 出入하는 곳이므로 脾로 본다. 입의 五臟은 몸통 속에 간직되어 있기에 內라 하고 코는 코 속에 五臟이 간직되어 있어서 外로 본다²³⁸⁾. 耳目口鼻가 存在物이라는 것은 脾臟이란 뜻이다. 먹어서 皮肉脈筋骨을 길러준다²³⁹⁾.

5) 形象醫學과 『東醫寶鑑』 目次의 상관성

形象醫學에서 살펴보면, 전체의 바탕으로서의 精氣神血이 있고, 심어져 있는 씨앗으로 五臟六腑가 있고, 五臟六腑가 몸에 발현된 魚鳥走甲類가 있고, 五臟六腑와 皮肉脈筋骨을 연결하는 經絡이 있다. 經絡은 五臟六腑에 각각 絡屬한다. 경락이 발달한 것을 따라 六經形이 있다. 즉, 얼굴의 耳目口鼻는 몸의 五臟六腑가 드러난 곳이다. 몸과 사지는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이다.四肢에는 十二經絡이 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과 사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形象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기준을 삼는다.

形象醫學에서 形象의 分類는 精氣神血科, 五臟六腑, 魚鳥走甲類, 六經形 등으로 『東醫寶鑑』의 目次順序와 비교해 보면 精氣神血, 夢·聲音·言語·津液·痰飲, 五臟六腑, 胞·蟲·小便·大便 등으로 精氣神血은 精氣神血科로 五臟六腑는 魚鳥走甲類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Ⅲ. 總括 및 考察

本論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東醫寶鑑』은 몸길의 여러 부위를 하나로 묶은 「外形篇」, 몸안의 여러 구성물을 하나로 묶은 「內景篇」,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로 묶은 「雜病篇」, 本草에 대한 「湯液篇」, 침과 뜸에 대한 「鍼灸篇」 등으로 묶어 目次를 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한의학 역사상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것으로 대개의 韓醫書들이 질병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東醫寶鑑』은 몸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즉 저자인 許浚은 병에 앞서 몸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東醫寶鑑』을 구성했다는 말이 된다. 몸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形象을 중요시한다는 말이다. 『東醫寶鑑』 첫머리에 身形臟腑圖를 두어 形象을 강조하며,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었고, 그 설명으로 ‘形色에 따라 治法이 다르다.’고 한 것은 좋은 증거가 된다. 또 『東醫寶鑑』의 集例에서 인체의 구성은 안으로 五臟六腑가 있고 筋骨, 肌肉, 血脈, 皮膚가 있어 그 形態를 이루고 精氣神이 臟腑와 百體의 主가 된다고 하였듯이 人體를 統體(전체)와 個體(부분)로 나누고 그것의 상관관계를 目次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臨床에서 한 例로 腰痛의 경우에 「腰痛門」에 있는 10종 요통의 처방을 쓸 수도 있지만, 精이 부족하면 「精門」에서, 產後腰痛이면 「婦人門」에서, 또 땀을 흘려서 오는 요통이면 「津液門」에서 찾아 써야 腰痛이 治療되는데, 이것은 『東醫

236)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422.

237)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598.

238)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664.

239)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666.

寶鑑』의 目次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요통을 치료하는 處方이 된다는 뜻으로 目次의 유기적 관계를 잘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된다.

본론에서 논술한 내용을 『東醫寶鑑』 목차 순서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內景篇』에서 『東醫寶鑑』의 첫머리에 나오는 身形臟腑圖는 그림으로써 이미 모든 것을 나타내었다. 이것을 설명한 身形臟腑論에서는 책의 大義를 말하고 있다. 사람을 우주에서 가장 靈貴한 존재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머리는 하늘을 닮아 등글고 발은 땅을 닮아서 모나다.'라고 하였다. 芝山先生은 이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여, '인체의 後面은 陽이며, 인체의 前面은 陰이다. 後面은 陽이기에 붙어 있는 物이 없고, 前面은 陰이기에 乳房과 性器 등이 붙어 있다. 또한 인체의 前面은 動物이며 動物은 橫으로 성립된다. 인체의 後面은 植物이며 植物은 縱으로 성립된다. 人間은 動物도 아니요 植物도 아니며, 動物인 동시에 植物이 된다. 動物과 植物을 다 갖추었기에 人間은 萬物을 대표하는 영귀한 존재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의학에서 人身은 小宇宙인 것을 명백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朱丹溪의 말을 빌어 '사람의 形象이 長短, 大小, 肥瘦, 黑白, 嫩蒼, 薄厚의 다름이 있고 肥人은 濕이 많고 瘦人은 火가 많으며 흰 사람은 肺氣가 虛하고 검은 사람은 腎氣가 足하므로 사람의 形象에 따라 外症이 비록 같더라도 治法은 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形象醫學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다.

『東醫寶鑑』의 目次의 順序는 精氣神血 다음에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으로 되어 있다. 精氣神血은 인체의 근본바탕을 말한다. 精은 입에서 취하며 氣는 코에서 神은 精氣의 교합으로 눈에 나타나고, 血은 精氣神의 滷으로 귀에서 나타난다. 또한 精氣神血의 矛盾이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으로 나타난다. 芝山先生은 精氣神血病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의 운행으로

나타난다. 한 예로, 手足에 汗이 나는 것은 精氣神血의 運行이 되지 않아서 津液이 새는 것이라고 하였다.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精氣神血을 좋게 할 수 있다.

다음에는 五臟六腑, 胞, 蟲, 小便, 大便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조문에서는 의사는 반드시 자신의 五臟六腑, 毛髮 筋骨의 構造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五臟은 精神 血氣 魂魄을 간직하고 六腑는 水穀을 消化해서 津液을 만든다. 또 五臟이 七竅와 통한다는 것은 鬻속의 五臟이 얼굴의 耳目口鼻에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면 五臟의 상태를 알 수 있다.

『東醫寶鑑』 「用藥篇」에서는 標治와 本治의 선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로 병을 다스리는 법이 반드시 먼저 그 本을 다스린 뒤에 다음 그 標을 다스려야 하는 법이지만, 中滿과 大小便의 不利는 그 標와 本을 가릴 것이 없이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芝山先生은 精氣神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과 五臟六腑 胞, 蟲, 小便, 大便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形을 돌위준다는 얘기는 血을 돌군다는 말이며, 한 예로 不眠症도 精氣神血이 나빠서 오면 「夢門」의 藥을 쓰지만 五臟六腑가 不和되서 오면 大소변을 通利시켜주면 된다. 예를 들어 저녁에 소변을 자주 봐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小便短少를 치료해주면 잠을 잘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五臟六腑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芝山先生은 韓醫學의 診斷方法에 大小便을 보고 病을 판단하는 이유는 五臟六腑가 生成되는데 있어 그 矛盾의 排除與否를 알 수 있기 때문이며 大便과 小便이 정상이면 身形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다. 五臟六腑가 生成되었을 때 大小便의 배출이 잘못되면 外形자체에 이상이 생긴다. 따라서 大小便 다음에 「外形篇」이 있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五臟六腑와 大小便의 관계 및 外形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外形篇」은 머리로부터 아래의 각 부위를 설명하고, 皮肉脈筋骨로 밖에서 안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成體의 根本인 手足을 말하고 전신을 싸고 있는 毛髮과 生殖器인 前陰과 肛門인 後陰으로 前後로 구성되어 있다.

「天地運氣」에서는 의원은 반드시 천지의 運氣를 알아야 한다고 하여 時間에 따른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陰陽의 氣가 升降하고 盈虛하는 경우를 보면 春夏秋冬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節氣에 따라 補中益氣湯의 季節方이 다르고(立春, 立夏, 立秋, 立冬에 따라 약을 달리 써야 한다.) 계절에 따라 汗吐下法을 다르게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봄에는 吐法을 여름에는 汗法을 가을에는 下法을 써야 한다. 補陰을 하는 경우에도 虛勞의 用藥法을 보면 여름에는 六味地黃元을 쓰고, 봄, 가을에는 腎氣丸을 쓰고, 겨울에는 八味地黃丸을 쓰게 되어 있다. 즉, 계절에 따라 약을 달리 쓰게 되어 있다. 審病, 辨症, 診脈, 用藥으로 병을 알고 약을 쓰는데도 아주 자세히 나뉘 놓았다. 『東醫寶鑑』의 중간부분에 위치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에 風寒暑濕燥火는 六氣로 外部에서 병이 오는 경우인데 六經形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음에 內傷으로, 丹溪는 사람은 根本이 없고 다만 물과 食料로서 命을 삼는다 하는데, 脾胃는 土에 속하면서 水穀을 들이는 것을 주재하니 그것이 사람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脾胃는 後天의 根本이 된다. 사람의 모든 병은 內傷에서 시작된다. 芝山先生은 內傷과 傷寒과의 비교로 內傷의 鼻息不利는 목소리가 쉬지 않는데, 外感風寒 傷寒은 목소리가 선다고 하였다. 內傷과 榮衛관계에 대하여, 밥을 먹으면 눈을 뜨고 숨을 쉬면 귀가 뚫린다. 氣는 呼出吸納을

함으로써 榮衛가 운행되고 內傷은 寒熱허실이 있으므로 榮衛가 運行된다.

다음에 老人이면 누구나 오는 虛勞에 대해서 말하였다. 虛勞란 대개 飲食이 減少하고 精神이 昏迷하고 遺精하고 夢泄하고 腰背胸脇筋骨이 당기고 아프며 潮熱하며 自汗하고 痰盛하고 咳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皮毛, 肌肉, 筋骨, 骨髓, 氣血, 津液이 모두 不足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雜病篇」에서 霍亂, 嘔吐, 咳嗽,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疸은 몸 안팎이 다 상해 깊어진 병을 설명한 것이고, 痰癆, 瘟疫, 邪祟, 癰疽, 諸瘡은 괴이하고 고약한 병을 말한 것이며, 諸傷, 解毒, 救急, 怪疾, 雜方은 응급상황의 발생과 해결에 대해 말한 것이다.

다음에 여성만이 妊娠과 出産을 하므로 「婦人門」을 두었는데, 다른 醫書처럼 女性의 身體器官인 胞와 乳房에 관한 내용을 「婦人門」에 실지 않고 胞는 「內景篇」에 乳房은 「外形篇」에 실었다. 이는 許浚이 身體器官의 위치를 분류의 우선으로 삼았음을 뜻한다.

小兒는 어른과 달리 신체가 약하므로 「小兒門」을 두었다.

「湯液篇」에서 湯液序例는 藥物學總論이라 할 수 있는데, ‘氣味の 升降을 보면 陽은 氣가 되고 陰은 味가 되며 陽氣는 위의 孔竅로 나가고 陰氣는 밑의 孔竅로 나간다고 하였다. 위의 孔竅는 소변이며 아래의 孔竅는 大便이다. 小便은 陽氣의 運行을 보며 이는 五臟의 運行을 말한다. 大便은 陰血의 運行을 보며 이는 六腑의 運行을 말한다. 하늘에 陰陽이 있으니 溫熱은 陽이며 涼寒은 陰이요 땅에도 陰陽이 있으니 辛甘淡은 陽이며 酸苦鹹은 陰이다.’ 코로는 呼吸하니 寒熱溫涼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슴을 말한다. 입으로 먹어서 精을 만드니 酸苦甘辛鹹의 五味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람은 먹어서 氣味를 섭취하여 하늘과 땅의 기운을 섭취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인체를 小宇宙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鍼灸篇』에서는 침뜸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 말하였다.

이상으로 각 편의 目次의 내용을 살펴보니 目次들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의 편찬동기를 보면, 쓸데없는 醫學理論이나 處方의 난무를 정리하려고 하였다. 『東醫寶鑑』의 편찬의 특성은 『鄉藥集成方』이나 『醫方類聚』를 이어받아 中國醫學을 토착화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分門類聚하여 자주적으로 수용하였다. 윤창열은 『東醫寶鑑』의 위대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하였다. 첫째, 活用に 實用的이다. 증상만 알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당시까지의 모든 醫書의 核心과 精髓만 발췌하였고 조리가 정연하다고 하였다.

같은 시대의 명의 양예수는 『醫林撮要』을 교정했으며, 『東醫寶鑑』의 골격을 잡는데 기여했다고 보인다. 『東醫寶鑑』은 보통 醫書와는 달리 모든 대목마다 일일이 引用文獻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醫學經典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東醫寶鑑』의 전체 目次는 유기적인 세계를 나타내었다. 『東醫寶鑑』의 각 문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東醫寶鑑』 25권 중 2권을 차지하는 目次는 간단한 단어와 개념에서 시작하여 本文의 깊숙한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충실한 안내자 구실을 하고 있다. 한가지 덧붙이면 책의 구성이 뛰어나다.

『東醫寶鑑』은 무려 2천여 가지의 病症, 1400종의 藥物, 4천여 가지의 處方, 수백 가지의 養生法과 鍼灸法 등을 망라했다. 규모만 따진다면 이보다 더 방대한 저작이 적지 않다. 『聖濟總錄』, 『醫方類聚』, 『普濟方』 등이 그것이다. 『普濟方』에는 무려 6만여 가지 처방이 실려 있다. 그러나 병증과 치료법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책들은 『東醫寶鑑』의 수준에 턱

없이 뒤떨어진다. 요령있는 處方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정현의 『壽世保元』과 『萬病回春』, 우단의 『醫學正傳』이 눈에 띈다. 그러나 규모가 『東醫寶鑑』처럼 전면적이지 않다. 李梴의 『醫學入門』은 『東醫寶鑑』에 필적할만한 규모인데다 쉽게 病症과 그에 알맞은 處方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醫學分野를 포괄하는 안목과 각 항목을 짚어내는 세기에서 許浚에 뒤져있다. 즉, 물거울 편집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東醫寶鑑』이 당시 동아시아 醫學을 종합한 醫書 중 최고봉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形象醫學에서 말하는 形象의 분류와 人體 각 부분의 상호관계를 통해 形象醫學과 『東醫寶鑑』 目次의 상호관계를 알아보면,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있어서 기본특징으로 整體觀을 들 수 있는데, 人體는 하나의 有機的인 整體이다. 臟象學說을 보면 五臟을 중심으로 각 臟과 腑의 經絡이 서로 絡屬하고 陰과 陽이 짝이 되어 表裏를 이루며, 五臟은 皮肉脈筋骨의 形體, 그리고 舌, 鼻, 口, 目, 耳, 二陰 등의 官竅와 서로 연결되어 整體를 이룬다. 五臟은 또한 喜怒哀思恐의 情志活動과 연관되어 整體를 이룬다. 이로써 인체는 五臟을 중심으로 하고 經絡系統을 통하여 안으로 臟腑에 屬하고 밖으로 肢節에 絡하는 연결작용을 함으로써 內臟, 形體, 五官九竅, 四肢百骸 등 전신의 각 조직기관이 연결되어 하나의 有機的 整體를 이룬다. 이와 같이 인체는 有機的인 整體를 이루고 있음으로 전체 속에 부분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形象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形象醫學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은 精氣神血科, 五臟六腑, 魚鳥走甲類, 六經形 등이다. 이들의 상관관계는 精氣神血은 발이며 五臟六腑는 씨앗이다. 몸에 있어서 五臟六腑는 씨앗이며 魚鳥走甲類는 몸으로 발현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

겠다. 물론 얼굴에 있어서 五臟六腑와 魚鳥走甲類를 살필 수 있다. 예로 코를 金으로 볼 때는 五臟六腑로 보는 것이며, 냄새를 잘 맡는 走類(肝)로 보는 것은 魚鳥走甲類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六腑는 體이며 魚鳥走甲類는 用이라 하겠다. 魚鳥走甲類는 몸이 五臟 중에 어느 臟이 발달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며, 五臟六腑는 體이며 魚鳥走甲類는 用이라 하겠다.

精氣神血科는 『東醫寶鑑』의 첫머리는 「精門」, 「氣門」, 「神門」, 「血門」으로 시작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形象醫學에서 보는 精氣神血이란 인체의 바탕이며 말이다. 얼굴전체의 모습을 말한다. 몸은 변화가 많고 머리는 변화가 적다. 그런 의미에서 精氣神血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입으로는 精을 만들고, 코는 호흡하여 氣를 만들고, 눈은 精氣가 교합하여 神을 밝히고, 귀로는 血을 養한다. 精이란 인체의 根源이 되는 것이며, 氣란 精을 만드는 기운이란 의미이며, 神이란 그러한 精氣가 작용하는 것이며, 血이란 이러한 精氣神이 모두 있어서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이룬 것을 의미한다. 精氣神血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精科, 氣科, 神科, 血科라고 한다. 天圓, 地方, 人角이란 말이 있는데, 하늘은 둥그니 얼굴이 둥글면 精科인데, 精이 잘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땅은 네모나니 얼굴이 네모나면 잘 들어가지 않으니 精이 잘 형성되지 않으므로 氣科라고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원과 네모의 중간은 三角形밖에 없다. 하늘기운이 많은 逆三角形은 神科, 땅기운이 많은 三角形은 血科이다. 이것을 李正來의 『相學眞傳』에서는 天形, 地形, 人形으로 구분하여 營養質, 筋骨質, 心性質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形象醫學에서 精科, 氣科, 神科, 血科의 구분과 『東醫寶鑑』의 目次가 「精門」, 「氣門」, 「神門」, 「血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東醫寶鑑』의 目次는 精氣神血門 다음에 五

臟六腑가 나와 있다. 五臟六腑는 얼굴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精氣神血의 바탕 속에 어떤 씨앗이 심어져 있는가? 몸에는 五臟六腑가 숨겨져 있지만 얼굴에는 耳目口鼻의 大小, 高低, 剛柔, 正偏이나 色으로 나타난다. 五臟六腑는 몸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五臟六腑에 대해 芝山先生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五臟의 長은 肺가 되고 五臟六腑의 長은 心이며 精氣神血의 元은 脾가 되며 木火土金水の 운동(呼吸운동)의 축은 肝이며, 臟腑生成原理의 根源은 腎이다.

魚鳥走甲類는 '魚類, 鳥類, 走類, 甲類'는 몸이 五臟 중에서 어느 臟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보는 것이다. 魚類는 입이 발달하여 맛을 잘 알고, 鳥類는 눈이 발달하여 잘 보고, 走類는 코가 발달하여 냄새를 잘 맡고, 甲類는 귀가 발달하여 잘 듣는다. 五臟의 機能(用)을 말한다. 약을 쓰는 것은 五臟六腑門에서 같이 쓴다.

六經形은 『東醫寶鑑』의 「寒門」과 「風門」에 나와 있다. 形象醫學에서 六經形은 陽明形, 厥陰形, 太陽形, 太陰形, 少陰形, 少陽形이다. 어느 경락을 위주로 발달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肝과 肺는 氣血의 운행을 주관하는데, 肝은 血을 운행하고 肺는 氣를 운행한다. 눈은 血을 소모하고 코는 氣를 소모하는데, 눈과 코의 기세를 보아서 少陰形, 少陽形, 太陰形, 太陽形을 구분한다. 그리고 陽明形은 陽明經이 발달하여 잘 먹고, 얼굴의 전면이 볼록렌즈처럼 튀어 나왔고, 눈두덩이 두둑하고 면이 넓적하고 乳房이 크고 배가 나왔다. 厥陰形은 陽明形과는 반대로 얼굴의 전면이 오목렌즈처럼 들어갔다. 특히 눈이 들어가고 乳頭가 크며 몸이 차고 추위를 탄다.

전체를 알기 위해서 人體 各 부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머리에는 耳目口鼻로 五臟六腑가 운행하고 있고, 몸에서는 五臟六腑가 숨어 있다. 머리와 몸은 반대로 되어 있다. 形象醫學에서 사람을 해부하면 그 사람의 五臟六腑를 알 수 없고, 얼굴을 보아야 그 사람의 五臟六腑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의미이다. 한의학이 그렇게 되어 있다. 肉體가 動할 때는 精神은 靜하고, 精神이 動할 때는 精神이 靜한다. 精神은 머리에 있고, 肉體는 몸에 있다.

몸과 사지와와의 관계는 胃는 水穀의 바다가 된다. 五臟六腑는 모든 기운을 胃에서 받는다. 六腑인 胃는 受納작용을 하고 胃의 經絡인 陽明經은 腐熟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腐熟시키는 작용은 三焦나 命門에 의해 이루어진다. 『靈樞·本神』에 脾氣가 허하면 四肢를 쓰지 못하고 五臟이 不安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걸어야 만이 消化가 된다. 消化가 안되면 食後昏倦의 증상이 있다. 四肢의 활동으로 胃가 六腑에 氣血을 공급한다. 六腑는 五臟에 氣血을 보낸다. 몸의 중심에 五臟이 있고, 그 五臟은 六腑에서 기운을 받고, 六腑는 胃에서 기운을 받고, 胃는 脾와 관계가 있으며, 脾는 四肢에서 기운을 받으니 四肢는 12經絡을 말한다. 몸통과 수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몸통은 五臟이 들어 있는 곳이므로 陰이 되고, 四肢는 몸통에서 뻗어 나온 것이므로 陽이 된다. 그러므로 손가락이 나쁘다는 것은 脾胃가 나쁘다는 뜻이다.

形象醫學에서 몸이 발달하면 膀胱體, 사지가 발달하면 膽體라 하는데 이는 몸과 四肢와의 관계를 논한 것이다. 膽體는 形衰氣盛하고 陽盛陰虛하며, 膀胱體는 반대이다. 손은 風寒濕의 瑞氣를 받기 때문에 혼드는 것이요, 발은 風寒濕을 排除하기 위해서 걸어간다. 몸통이 氣血의 통로가 되는 것은 手足太陽經은 寒水로 몸의 뒤를 행하고, 手足陽明經은 燥金으로 몸의 앞을 행하며, 手足少陽經은 相火로 몸의 側面을 행한다. 그리고 手足太陰經은 濕土로 大腹에 퍼져 있으며, 手足少陰經은 君火로 小腹에 퍼져 있으며, 手足厥陰經은 風木으로 軟脇에 퍼져 있다. 오른 팔은 肺가 주관하고, 왼팔은 心이 주관하고, 왼 발은 肝이 주관하고, 오른 발은 腎이 주관한다.

머리와 몸과 사지와와의 관계는 얼굴의 耳目口

鼻는 몸의 五臟六腑가 드러난 곳이다. 몸과 사지는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四肢에는 十二經絡이 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과 사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체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東醫寶鑑』의 目次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臨床에서 어느 門에서 처방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芝山先生은 “병이란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얼마나 고치기 쉽겠는가?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 아픈 약만 쓰면 되는데, 이 환자는 여러 증상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그것을 풀어서 고치는 방법을 變通이라 하고 病因을 찾는 것을 窮理라 한다²⁴⁰⁾.” 호소하는 증상이 많을 경우엔 症狀를 위주로 하여 處方을 구하려 하면 잘 모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症狀이 錯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形象을 모르면 흠을 찾기가 어렵다.

한 사물을 놓고 보는 학문적 시각도 동양은 통체에서 부분으로 연화하여 분석해 나가는 종합적인데 비해 서양의 학문은 부분을 통해서 통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서양은 국소적인데 동양은 종합적이란 말도 한다. 醫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알 수 있고,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形象을 본다는 것은 통체와 개체를 함께 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形象은 중요하다고 하여 形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形象의 相互關係에 대해 ‘存在物은 四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四象이란 形態, 色, 機能, 性情으로 形態란 精氣神血科를 나타내며, 色이란 五臟六腑를 나타내며, 機能이란 魚鳥走甲類를 나타내며, 性情이란 六經形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사람은 여러 가지 形象으로 이루어져 있다. ‘四象 속에

240)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p. 125.

五行이 있고 五行 속에 四象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몸속의 五臟六腑가 얼굴에서는 耳目口鼻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고 五臟六腑의 상태를 알 수 있으니, 한의학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한 形象醫學의 근거가 된다.

『東醫寶鑑』의 目次의 意味에 대해서도 芝山先生은 醫書의 처음부터 끝이 모두 咳嗽을 고치는 처방이 나오지만 가장 보편적인 體系로 目次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雜病篇」에 「咳嗽門」을 만들어 놓았다. 雜病을 알려면 統體를 알고 部分을 알아야 한다. 나이가 女子 14세, 男子 16세 이하면 先天病으로 보고 대개 『東醫寶鑑』의 앞부분에 나오는 處方을 쓴다. 그리고 中年의 사람들은 주로 內傷이나 七情의 처방들을 많이 쓰고 50-60세가 넘으면 「虛勞門」 등의 처방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환자의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處方을 쓰기도 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治療率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나이를 쓸 때 단순히 빈칸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써먹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기계가 많이 닳았으니 補해주고 기운을 조금 보충해주는 것이다. 완전히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胞門」에서의 生化란 男子의 精을 받아들여서 妊娠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반하여 「婦人門」은 妊娠하여 아이를 낳는 것, 창조에 대한 문제이다. 「胞門」은 창조이전의 미혼여성에 해당하고 「婦人門」은 창조이후의 이야기로 기혼여성에 해당한다.

精氣神血病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의 運行으로 나타난다. 手足에 땀이 나는 것은 精氣神血의 運行이 되지 않아서 津液이 새는 것이다. 키를 크게 하려면 人體의 根本인 精氣神血의 矛盾인 津液을 막아주어야 한다. 形을 돌귀 준다는 얘기는 血을 돌군다는 말인데, 不眠症도 精氣神血이 나빠서 오면 「夢門」의 藥을 쓰지만,

五臟六腑가 不和되서 오면 大小便을 通利시켜주면 된다. 예를 들어 저녁에 小便을 자주 봐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小便短少를 치료해주면 잠을 잘 수 있다. 大小便을 자주 본다는 것은 五臟六腑의 運行이 안 되는 것이다. 난소수술을 받아서 머리가 아픈데 食積으로 보아 正傳加味二陳湯을 써도 頭痛이 없어진다. 子宮이 나빠서 오는 頭痛이다. 頭痛에 반드시 頭痛藥만 써서 낫는 것은 아니다. 不妊에 月經의 異常과 함께, 胞는 衝任脈과 胃經과 연계되므로 乳房, 얼굴, 입술, 咽喉 등에 이상반응이 오면 胞의 질환으로 보고 치료하면 된다. 月經時 乳房痛에는 濟陰丹, 面色이 나쁘면 玉鑰啓榮丸, 입술이 벗겨지면 溫經湯, 목이 부으면 心氣가 통하지 못한 것이니 通經湯을 쓴다. 疝證은 「前陰門」의 질환이지만 이것도 任脈의 병이므로 氣科, 厥陰形, 난대의 차이, 鼻孔이 드러난 경우에 나타난다.

腰痛도 4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精氣神血이 나쁜 경우, 五臟六腑가 나쁜 경우, 身形이 나쁜 경우, 五運六氣에 상응하지 못해서 온다. 눈은 精氣의 메모리요, 코는 氣의 出入處요, 입은 精을 受納하는 곳이다 그래서 입은 受納하는 곳에 기에 胃로 보고, 코는 氣가 出入하는 곳이므로 비로 본다. 입의 五臟은 몸통 속에 간직되어 있기에 內라 하고 코는 코 속에 五臟이 간직되어 있어서 外로 본다. 耳目口鼻가 存在物이라는 것은 脾臟이란 뜻이다. 먹어서 皮肉脈筋骨을 길러 준다는 말이다.

임상에서 몸이 나쁜 상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한 예로 남자 16세인데 코가 막히고 盜汗이 있고, 입안이 험며, 피부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에 증상을 따라가면 막연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 환자의 形象이 瘦黑한 臍體(사지가 발달)인 것을 중심으로 보면, 盜汗이 나서 코가 막히고 입안이 험며 피부에 영양이 안 가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막연히, 여러 증상을 따라가면 어디에 주안

점을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으나, 形象을 중심으로 유추해 나가면(진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症狀의 상호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될 수 있다.

形象醫學에서 보면, 전체의 바탕으로서의 精氣神血이 있고, 심어져 있는 씨앗으로 五臟六腑가 있고, 五臟六腑가 몸에 발현된 魚鳥走甲類가 있고, 五臟六腑와 皮肉脈筋骨을 연결하는 經絡이 있다. 經絡은 五臟六腑에 각각 絡屬한다. 경락이 발달한 것을 따라 六經形이 있다. 풀어서 설명하면, 얼굴의 耳目口鼻는 몸의 五臟六腑가 드러난 곳이다. 몸과 사지는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四肢에는 十二經絡이 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과 사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形象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기준을 삼는다.

形象醫學에서의 形象의 分類는 精氣神血科, 五臟六腑, 魚鳥走甲類, 六經形 등으로 『東醫寶鑑』의 目次순서와 비교해 보면 精氣神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五臟六腑, 胞, 蟲, 小便, 大便 등으로 精氣神血은 精氣神血科로 五臟六腑는 魚鳥走甲類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의 目次는 形象醫學에서의 形象의 分類와 같이 되어 있고, 『東醫寶鑑』의 目次는 질서정연하게 構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이 어디에 있을까? 혹자는 오늘날 많은 한의사가 『東醫寶鑑』을 金科玉條로 떠받들지 않고 『東醫寶鑑』의 많은 處方이 실제로는 잘 듣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전에 芝山先生은 『東醫寶鑑』의 處方을 써서 수많은 難治病을 고치고, 현재 大韓形象醫學會 회원들은 새벽이면 『東醫寶鑑』을 主教材로 하여 열심히 배우고 많은 難治病을 고치고 있다. 副教材로 『古今實驗方』이나 『一見能解經驗醫訣』, 『御纂醫宗金鑑』이나 기타 醫書를 사용하지만, 『東醫寶鑑』을 주교재로 삼는 것은 形象을 위주로

目次가 되어 있고, 目次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形象은 統體와 個體를 함께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個體의 합이 統體라는 것은 서양의학이며 個體와 統體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입장이 形象醫學인 것이다. 形象醫學의 整體性을 말하고 있다.

필자는 『東醫寶鑑』의 目次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東醫寶鑑』이 中國의 여러 醫書를 종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醫學體系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록 도자기를 굽는 것은 中國에서 들여왔지만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구현한 高麗靑瓷의 獨創性에 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IV. 結論

1. 필자가 『東醫寶鑑』의 目次를 研究하는 理由는 『東醫寶鑑』의 目次가 形象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理由를 다시 한번 芝山先生의 주장을 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形象의 重要性을 들고 있는데, 形象은 統體와 個體를 함께 보는 방법이며, 실지로 임상에서 호소하는 증상이 많을 경우에 症狀을 위주로 하여 處方을 구하려 하면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 症狀이 錯綜되어 있기 때문에 形象을 모르면 흠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로 形象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形象 상호간에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2. 『東醫寶鑑』의 目次順序와 形象醫學에서 보는 形象의 分類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東醫寶鑑』은 形象을 中心으로 目次가 構成되어 있다.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篇, 鍼灸篇)
 - 2) 『東醫寶鑑』의 目次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 3) 『東醫寶鑑』의 目次를 研究해야 하는 理由는, 形象을 보는 것은 統體와 個體를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이며, 症狀은 錯綜되어 있기 때문이다.
 - 4) 精氣神血科는 精氣神血門과 관계가 있다.

- 5) 五臟六腑나 魚鳥走甲類는 五臟六腑門과 관계가 있다.
- 6) 精氣神血의 矛盾이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으로 나타난다.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精氣神血을 좋게 할 수 있다.
- 7) 五臟六腑가 돌아가는 것은 胞, 蟲, 小便, 大便에 나타난다.
- 8) 小便은 五臟(陽氣)의 運行을 나타내고, 大便은 六腑(陰血)의 運行을 나타낸다.
- 9) 몸속의 五臟六腑가 얼굴에서는 耳目口鼻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고 五臟六腑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한의학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자체가 形象醫學이다.
- 10) 六經形은 『東醫寶鑑』의 「寒門」과 「風門」에 나와 있다.
- 11) 形象醫學에서 보면, 전체의 바탕으로서의 精氣神血이 있고, 심어져 있는 씨앗으로 五臟六腑가 있고, 五臟六腑가 몸에 발현된 魚鳥走甲類가 있고, 五臟六腑와 皮肉脈筋骨을 연결하는 經絡이 있다. 經絡은 五臟六腑에 각각 絡屬한다. 經絡이 발달한 것을 따라 六經形이 있다.
10. 康命吉, 濟衆新編, 杏林出版社, 서울, 1982.
11. 두호경, 동양의약은 어떤 학문인가?, 교학사, 서울, 2003.
12. 龔廷賢, 增補 萬病回春, 杏林書院, 서울, 1972
13. 韓長庚, 周易 正易, (주)도서출판 삶과 꿈, 서울, 2001.
14. 韓長庚, 易學原論, 學友社, 단기4288.
15. 한대희, 허준은 살아 있다, 수서원, 서울, 2000.
16. 尹眞人 著, 李潤鴻 譯, 性命圭旨, 한국문화사, 서울, 1995.
17. 韓南洙 著, 金性銓 編, 石塘 理氣 漢醫學, 醫聖堂, 서울, 1992.

「參考文獻」

1.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芝山出版社, 서울, 2003.
2.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3.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한겨레출판사, 서울, 2001.
4.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 들녘, 서울, 2003.
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95.
6. 許浚 原著, 原本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76.
7.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 석사논문, 2002.
8. 成周鳳, 韓方醫學講習書, 忠南 大田, 以文社, 昭和 11년
9. 배병칠 편, 基礎韓醫學, 성보사, 서울, 1997.